

일곱성사 영성생활

심흥보 베드로

차 례

들어가면서

0. 일곱성사 영성생활 개관 - 교회의 성사

0-1. 일곱성사 영성생활 개관 관상기도

1.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 세례성사 영성생활

1-1 세례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2. 성령께 의지하여 - 견진성사 영성생활

1-1 견진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3.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 성체성사 영성생활

3-1 성체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4. 가장 좋은 길 - 고해성사 영성생활

4-1 고해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5. 고통에서 영광으로 - 병자성사 영성생활

5-1 병자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6.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 성품성사 영성생활

6-1 성품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7. 둘이 한 몸을 - 혼인성사 영성생활

피정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활 - 일곱성사 영성생활

부록 성사로 간주할만한 표지들

1. 말씀의 전례와 말씀 나누기

2. 기도
3. 거룩한 신심행위
4. 희생-단식과 자선 그리고 봉사
5. 축성-축성생활회(수도회와 재속회)와 평신도 신심 단체
 - 1) 수도자 종신 서원
 - 2) 동정녀 축성 예식
 - 3) 레지오 마리아 선서문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본당에서 매일 성체성사가 거행되며, 한 해에 적어도 한두 번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집전됩니다. 그런데 가끔 아쉽게도 성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성사에 참여하는 순간과 그 순간을 기억하는 며칠만을, 그것도 의식의 화려함과 의식 중에 느낀 감정적인 기분만을 기억에 남기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정점이라는 거룩한 미사 전례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평일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주로 노인분들이거나 여성들입니다. 미사를 어느 나라에서는 ‘서비스’(service)라는 안내판 항목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신자들에게, 하느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필요와 아쉬움을 어루만져 주고 들어 주는 편의시설과 편의 제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신자들의 원의와 관계없이, 공짜로 제공된 ‘희생제사’(sacrifice)라는 측면에서, 하느님의 침묵을 부채질(?)하고, 십자가의 제사를 더욱 제사답게 한다는 역설적인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나마 신자들이 전례나 성사와 연관되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관심사는

“주일미사 한 번이라도 빠지면 고해성사 보아야 합니까?”,

“본당 신부님께 고해성사 보지 않기 위해서 주일미사 빠지지 않기로 했대요!”,

“왜 하필 월드컵 시즌에 견진교리를 집어 넣으셨어요?”,

“견진 받은 신자가 그럴 수가 있어?”

정도입니다.

이러한 표현 뒤에 숨겨진 전례생활은, 종교가 신자들에게 주는 계율에 대한 의무와 그 의무를 꺾한 데서 오는 부담과 죄의식입니다. 전례와 성사가 인간을 억압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라는, 본래의 모습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상에 드러난 피상적인 일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성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주님의 은총과 현세적인 축복, 그리고 은총으로 부여되는 지위에는 관심이 많지만, 각 성사의 은총이 의미

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성사생활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이거나, “착하게, 잘 살아야지요!” 하는 등의 막연한 결심뿐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받는 일곱성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목하고자 하는 의도로 집필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일곱성사 영성생활’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성당에서 받는 ‘일곱성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일곱성사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모색해 나갑니다.

이 책은 우선, 복음서에 나오는 주 예수님께서 일곱 성사에 관하여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는지를 알아봅니다.

이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비롯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통해 각 성사의 의미를 살핍니다.

그리고 일곱 성사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 삶에 접목하는 영성생활을 모색합니다. 이 부분은 바오로 서간을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또한 덤처럼 각 성사생활의 내용과 연관된 주제 성경 구절로 관상기도를 하나씩 넣어, 각 성사의 영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한 생을 주님을 따르다가, 하늘에 오르신 성모님을 본받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당한 우리도 현세의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주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 안기기를 간구하며, 겸손된 마음으로 주님과 성모님 대전에 이 책을 봉헌합니다. 아울러 우리 신자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섭리와 안배로 베풀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천주강생 2024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촌3동 103위 한국순교성인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0. 일곱성사 영성생활 개관

-교회의 성사

글씨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사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세례성사 때는 그저 줄줄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첫영성체는 너무 어릴 때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요? 성체를 모신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도…….”

“성사가 내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둘이

성사를 받던 순간을 기억해 보고, 옆 사람과 둘이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세례성사를 받으며 내 이마 위에 차가운 물이 떨어져 흐를 때, 내 머리를 하얀 미사보로 감싸 줄 때……,

두 손에 초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듯, 제대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설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내게 해주신 내 유아세례 때의 이야기나 내 어린 시절의 성사 생활 이야기…….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떨리는 가슴으로 고해실에 들어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 받고 후련한 마음으로 고해소를 나올 때……,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먼저 말하고 정작 고백했어야 할 죄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을 때……,

말하기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두려워 고백하지 못하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만을 힘주어 말했을 때……,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의 몸을 모시고 황홀해 했을 때……; 정말 주님의 몸인지 의심

했을 때……

나는 성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일찍이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35절)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적 표징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불리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성사에 대해,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향하며, 표징들로서 교육에도 기여한다.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라고 한다. 성사는 참으로 은총을 가져다주며, 그 집전은 신자들이 그 은총을 알차게 받고 하느님을 바로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매우 잘 준비시켜 준다.”(전례 헌장 59)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입니다.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표지, 표징, 사인-sign)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사를 통해 하느님을 만납니다.

첫째,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사랑의 표지입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도록 해주는 표시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도록 보여 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사랑, 슬픔, 배고픔 등 온갖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성사의 원천이시기에, 예수님을 ‘원성사’라고 합니다.

셋째, 교회는 성사를 통해 신자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신자들은 성사 생활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서 명하신 사명을 계속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 보여 주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성사입니다.

넷째, 그러면 “누구를 위한” 성사인가?

- 케난 오스본 저, 김광식 역, 성사 신학, 제3장 그리스도교의 성사들과 방법론, 56쪽, 분도출판사, 199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교 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드러나신 하느님의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께서서 가르쳐 주신대로 산다면, 그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교회의 칠성사와 준성사들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믿는 이들을 위한 성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칠성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칠성사와 준성사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칠성사를 받은 신자들의 삶(성사 생활)을 통해, 사람들은 성사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신자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사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사도요, 선교사들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집성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가 집전하는 성사에 대해 이렇게 이룹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성사 거행의 가시적인 예식은 각 성사에 고유한 은총을 나타내며 이를 실현한다. 성사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는다.”(1131항)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적 공동체로서 사제와 일반 신자로 구성된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함께 성사를 집전합니다. “교회는 세례 사제직(보편 사제직)과 성품 사제직(직무 사제직)으로 구성된 사제적 공동체로서 성사들을 거행한다.”(1132항)

성사는 성사를 받으려는 이들의 마음의 준비와 정성으로 적절한 효과를 드러냅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 성사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신다. 그럴 때 성사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표현한다.”(1133항)

성사는 비단 성사를 받는 이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성사를 받는 이들의 새로운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새로 나게 해주며, 교회 공동체원 전체에게 새로운 은총으로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교회 공동체를 하느님 나라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해 줍니다. “성사 생활의 열매는 개인적이며 동시에 교회적이다. 한편으로 신자 개개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삶을,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게는 사랑과 증거의 사명에서 성장을 이루어 준다.”(1134항)라고 밝힙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인간 생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자 삶의 각 순간을 축복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나가도록 일곱개의 성사를 거행합니다. “신약시대의 성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며, 그것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의 일곱 가지이다. 이 일곱 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요한 모든 단계와 시기에 관계된다. 성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며, 치유하고 사명을 부여한다. 이 점에서 자연적인 삶의 단계들과 영적인 삶의 단계들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1210항)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에페 1,3-14)

1³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⁴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⁵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⁶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⁷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⁸하느님께서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⁹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¹⁰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¹¹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¹²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¹³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¹⁴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사생활의 영성생활 개관

주님께서서는 성사생활을 통해 “나와 함께 아버지에게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에페 1,3L)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세상을 지어 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생겨라!”는 한 말씀으로 만드시고 당신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지어 내신 세상 만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 만드신 것 중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는 하면서도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을 섬기는 데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느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인간들은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하느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일마저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느님을 이용했고, 지배하려고 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인간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것을 골고루 사랑하셨지만, 인간은 자

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만을 따져, 옳고 그름과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히브 1,1 참조) 인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 듣고는 하느님께 되돌아오기도 했지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불행하게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인간을 타이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했지만, 인간들은 자주 그리고 점점 더 하느님을 떠나 악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관계된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 갔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질서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런 인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길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길인데도, 인간은 그 길을 피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당신이 만드신 인간에게 사랑의 길을 견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신 끝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2)

둘째,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도 우리처럼 배고파하셨고(“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마르 6,31ㄴ), 피곤하여 쉬고 싶어하셨으며(“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ㄱ), 친구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셨고(“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하고 말하였다.”-요한 11,35-36),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포로 떠셨다(“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마르 14,33ㄴ-35).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당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

예수님께서서는 온 정열을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콜로 1,19-20) 그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에페 1,4 참조).

셋째,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에페 1,5) 주님께서서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다른 인간과 사회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가지셨어도 그러한 인간 조건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갖가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웃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인간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현실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결과가 인간이 바라는 것을 주기보다는 전혀 다른,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 사람과 자연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유혹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인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잡고 있던 악의 세력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15; 갈라 4,6 참조)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희망이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아들의 순명을 보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우리의 주님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필리 2,9-11)

부활하신 주님께서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약속

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에페 1,13L)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끄시며 교회의 성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체성사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사도 11,26c) 성령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골로 1,18g)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1코린 12,27)

다섯째, 성령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이룰 때 비로소 교회가 되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L-20)

성체성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세례성사를 통해 “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몸담아 온,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버리고, 주님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 인생의 길로 선택함으로써, 주님의 자녀들인 교회 공동체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주님께서서는 견진성사를 통해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주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의 제사인 성체성사 안에서 나를 봉헌하고,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킬 힘을 얻어, 세상에 나를 또 하나의 성체로 바칩니다.

주님께서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나처럼 사랑을 완전히 이루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이기고, 주님처럼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사랑을 완성해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성품성사를 통해 “나와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주님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살고 머무는 그곳에서 기쁜 소식을 실현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느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사도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혼인성사를 통해 “내 앞에서 한 약속을 무르익히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함으로써 혼인의 서약을 무르익혀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자성사를 통해 “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죽음에 구애받거나 굴복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여기서 채워 나갑니다. 주님과 형제들에게 나를 바치고, 나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시킴으로써 주님의 구원사업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섯째, 주님께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성사생활을 통해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생명의 길을 전례와 성사 안에서 보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으며, 우리가 직접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묵상과 나눔

1. 2천 년 전에 살아 계시던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2. 주님의 삶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 성사생활을 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새 빛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로마 12,1)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

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0-1. 일곱성사 영성생활 개관 관상기도

이제 모두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기도하시면서 평소에 살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느낌과 생각들,
살면서, 어딘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거나,
씻어지지 않는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향해 들끓어 오르는 분노로 힘겨워하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 중에 주님과 함께하시면서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중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 라고 하신 주님 안에 머무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서기로 합시다.
여러분, 성당에 오시니까 좋으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좋아서 입이 이렇게 짹 벌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느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천사를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청하십시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

다.

◎ 아멘.”

눈을 지긋이 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음 속으로 10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조용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저를 따라서 기도문을 천천히 마음 속으로 바쳐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와 같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장애를 몰아내시고
예수님, 주님을 모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마음 깊이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 말하고 싶습
니다.

예수님,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 가까이 와 계신 것 알지만 현존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아무런 부끄럼이나 겁도 없이, 용감히 예수님과 대화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예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찬미 받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저의 약함을 아시죠.
어머니,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아시죠.
어머니,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분께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도 아기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도 기쁘시죠.

어머니, 어머니께서 느끼신 그 기쁨을 저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희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어머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현존 안에 지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부드럽고 어머니다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계속 숨을 고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조용히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시오...

자, 이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복음 구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와서, 하느님의 힘으로 주님의 아이를 가지게 되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고(루카 1,26-38)

1 ²⁶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²⁷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²⁹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³⁰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³¹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³²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³³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³⁴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³⁵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³⁶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³⁷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³⁸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 성경구절은 다같이 마음 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읽습니다.)

자 이제 두 눈을 감고 밤하늘을 그려보십시오.
주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정할까 고르고 계십니다.

저기 저 아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여기 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살펴보시다가
마리아를 발견하십니다.
아주 착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겸손한 소녀 마리아

주 하느님께서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부르십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주 하느님 앞으로 나옵니다.
대전사 가브리엘이 주 하느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대천사를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에게 커다란 사명을 주십니다.
“가브리엘아, 네가 내려가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나려무나!
마리아를 만나서, 내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전하여라.”

가브리엘 천사가 주 하느님께 여쭙니다.
“마리아가 제 말을 믿을까요?”

하느님께서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답하십니다.
“처음에는 안 믿겠지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니까
네가 잘 설명하면 들을 거야.”

가브리엘 천사는 고개를 숙이고 주 하느님 곁을 떠나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사는 이스라엘로 날라서 내려갑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사는 집을 찾아 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 밖에서,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사는 방을 그려 보십시오.
마리아는 방에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안에 환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처음보는 광경이라,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의 놀란 모습이 보이십니까?

놀라서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더 놀라서 몸을 움추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은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생각에 잠깁니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간신히 알아듣고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아기는 남자와 사랑을 해야만 생기는 거잖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마리아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천사에게 대꾸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을 건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는 무슨 말인지 알아 듣기도 힘들고
잘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얼떨결에 답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사에게 자기의 사명을 전해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내가 한 걸음 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저에게는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십니까?”

천사의 말을 집중하여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는 천사의 말을 들으며
하느님의 품 안에 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안겨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드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주 하느님 품에 안겨 오래오래 머물니다.
평안하고 포근한 그 품에 안겨서 쉬십시오.

(☞ 약 20분 가량 침묵 속에서 각자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뒤, 그간 천사와 하느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과 느낌을 적어보십시오.

(1)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적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이 금방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2) 그 성경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습니까? 또는 어떻게 마음을 흔듭니까?

(3)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내용이 주 하느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듯합니까?

혹시 하느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청하겠습니까?

* 위 질문들과는 다른, 자신이 기도하면서 다가온 느낌이나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기도 끝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아주 짧게 마무리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또 자기 주보성인에게 기도를 바치고 마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_____.”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_____.”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님, _____.”

“어머니, _____.”

1. 세례성사 영성생활

-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글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제 버릇 개 못 준다는데……”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요? 다들 그러잖아요?”

“어떨 땐 세례 받은 신자가 더 하던데요? 고해성사만 보면 된데요!”

“하느님께서서는 신자 편이니까, 잘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죠?”

둘이

나는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받을 때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선택하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옆 사람과 둘이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부모님이 시켜서? 결혼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해 주고, 나를 도와줄 형제.자매들이 필요해서? 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나는 세례성사를 어떻게 받(았)고 있는지?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일찍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회개하고자 하고 새롭게 살려는 사람들 틈에 끼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 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6-17)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이 죄에서 회개하여 새로나도록 하는 물로 씻는 세례였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세례성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써 구원받아 새로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예절입니다. 곧 자신의 죄로부터 죽고, 물과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성사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기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사고 체계 및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로운 삶,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인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새로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요한 3,5-6) 그리고 그렇게 새로남으로써,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15절)라고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라고 이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 생명의 물을 주시리라고 이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우리는 주 예수님에게서 얻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진정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을 살아 나가며,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24절)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26절)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살아 나가기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이어, 세례성사를 받은 주님의 자녀요 사도로서,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34절)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현장은 세례성사에 대해, “사제 공동체의 거룩한 특성과 유기적 구조는 성사와 덕행을 통하여 현실화된다.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합체되어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려고 힘쓴다.”(교회현장 11)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즉, 그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고, 몸과 마음이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세례 때 받은 지워지지 않는 세례의 ‘인호’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세상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세례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됩니다. 이 성사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 이웃, 자연 모두를 ‘선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세례성사를 통해 주님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집성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의 세 가지 입문성사에 대해 먼저 이룹니다. “그리스도교 입문은 세 가지 성사가 합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새 삶의 시작인 세례성사, 새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견진성사, 제자들이 당신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과 피로 양육하시는 성체성사이다.”(1275항)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례성사를 집전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1276항)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새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의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다.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듯이 세례도 구원에 필요하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간다.”(1277항)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1278항), 과거의 내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주님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복음의 길을 통해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복음화에 참여합니다. “세례의 효과 또는 세례의 은총은 풍요로운 것이다. 이 은총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본죄를 용서받고, 성부의 양자,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1279항)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다시 얻을 수 없는 ‘인호’라고 하는 영적 표지가 새겨지며, 교회의 찬미와 감사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세례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를 새겨 주는데, 이 인호는 세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교 예배를 드리도록 축성하여 준다. 이 인호 때문에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없다.”(1280항)

주님과 교회를 모르면서도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함께 구원됩니다.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예비 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1201항)

세례는 인간의 공로로서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로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교회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1202항) 또한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세례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한다.”(1203항)

비단 사제나 세례를 받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위급한 경우에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하고 말하면서 세례 받을 사람의 머리에 물을 붓기만 하면 된다.“(1284항)

말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로마 6,2-14)

6 ²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³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⁴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⁵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될 것입니다. ⁶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⁷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⁸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⁹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¹⁰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¹¹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¹²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¹³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¹⁴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세례성사의 영성생활

주님께서서는 세례성사를 통해 “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로마 6,2)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에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당에도 잘 나오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느덧 세례받기 전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하면 되지!” 하면서 점점 미루고 게을러지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전보다 더 세속화되었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았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성사는 완전하지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흐트러질 때마다 거듭 회개하여 내가 받은 세례성사를 완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로마 6,8)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시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내 잘못과 그릇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과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살기 위해 세례성사를 청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균림하지 못합니다.”(로마 6,9)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부끄럽고,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가 예수님을 뵙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치 자석에 끌리듯 저질러 왔던 악한 습관을 버리기란 아주 힘듭니다. 끊으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를 끌어당깁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로마 7,18-20)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로마 6,14) 주님을 선택하면 회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은총의 지배를 청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주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악습을 떨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수난과 부활의 힘이 우리를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넷째,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8) 내가 보기에 열심히 살고 있는 듯한 다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께 응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갈라 3,26)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 잘못의 책임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한 식구가 되도록 합시다. 다같이 한 식구가 되어 성령께서 보여 주시는 대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에페 4,3-4)

다섯째,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로마 6,12) 우리가 세례 때 한 결심과 다짐은, 어떤 의미로는 순수하고 단지 마음속의 이상을 그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짐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죄에 떨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내가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것보다 내가 해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과 베풀어야 할 것을 먼저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로마 6,11)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님의 수난에 참여합시다. 나가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시다. 또다시 태어나는 과정과 그 고통이 힘들기도 하지만 얼마나

살맛 나는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용기를 북돋워 줍시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 내 몸을 희생제물로 바칩시다.

묵상과 나눔

1.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죽이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2. 주님께만 전적으로 희망을 두고 살 결심이 섰습니까?
3. 지금 내 이웃 중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렵니까?

새 빛

- †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 죄의 뿌리인 마귀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교회의 신앙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 아멘.

†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

기도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이여 창조주시어
신자들 마음속을 찾아주시어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가슴을
천상의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그이름은 위로자시니
높으신 하느님의 선물이지요
생명의 샘이시며 불이시웁고
사랑과 신령하신 기름이외다

당신이 일곱은사 베푸시오니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손가락
성부의 언약대로 내려오시어
우리입 말씀씨로 채워주소서

빛으로 우리오관 비춰주시고
그사랑 우리맘에 부어주시며
영원한 능력으로 도와주시어
연약한 우리육신 굳게하소서

원수를 멀리멀리 쫓아주시고
언제나 당신평화 내려주소서
앞장서 이끄시는 당신손길에

해로운 모든것을 피하리이다

성령의 힘을입어 성부를알고
성자도 그힘으로 알게하소서
성부와 성자께로 좃어나시는
성령을 우리항상 믿으오리다. 아멘.

1-1. 세례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이제 모두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기도하시면서 평소에 살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느낌과 생각들,
 살면서, 어딘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거나,
 씻어지지 않는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향해 들끓어 오르는 분노로 힘겨워하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 중에 주님과 함께하시면서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중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 라고 하신 주님 안에 머무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서기로 합시다.
 여러분, 성당에 오시니까 좋으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좋아서 입이 이렇게 짹 벌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느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천사를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청하십시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

다.

◎ 아멘.”

눈을 지긋이 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음 속으로 10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조용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저를 따라서 기도문을 천천히 마음 속으로 바쳐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와 같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장애를 몰아내시고
예수님, 주님을 모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마음 깊이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 말하고 싶습
니다.

예수님,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 가까이 와 계신 것 알지만 현존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아무런 부끄럼이나 겁도 없이, 용감히 예수님과 대화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예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찬미 받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저의 약함을 아시죠.
어머니,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아시죠.
어머니,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분께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도 아기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도 기쁘시죠.

어머니, 어머니께서 느끼신 그 기쁨을 저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희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어머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현존 안에 지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부드럽고 어머니다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계속 숨을 고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조용히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시오...

자, 이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기도할 복음구절은 루카 보음에 나오는 자캐오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세금 대납과 고리대금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세관장 자캐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 나는 장면입니다.

말씀

예수님과 자캐오(루카 19,1-10)

19 ¹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²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³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⁴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⁵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⁶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⁷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⁸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⁹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¹⁰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 성경구절은 다같이 마음 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읽습니다.)

자 이제 두 눈을 감고 자캐오를 바라보십시오.
자캐오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고 왜소했습니다.
자캐오는 키가 작아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옷이나 신발의 크기, 책상과 걸상 높이 등이 살면서 쓰는 용품들이
일반 사람들의 외적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면에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캐오는 나름 그 시대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자캐오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곱게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편견으로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걷는 시기와 일반 시민들이 소득을 내는 시기가 다를 경우
세관장이 먼저 일반 시민의 세금 몫을 대납하고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대납한 수와 양을 계산하여,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원금과 이자를 쳐서 받았는데,
그 이자 금리가 일반시민들에게는 고리대금으로 비춰져서
당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대납할 때 잡은 담보를 강제로 처분하기도 했는데,
사정이 딱한 이들에게는 이것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라고 여겨
가련한 이들의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담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느님 사랑에 근거한 유다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
당대 종교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직업입니다.

한평생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자기의 신체조건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나마 자신이 택할 수밖에 없는 직업과 업무수행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사는
자캐오를 바라보십시오.

일반 시민들의 질시와 낙인을 받고 살던 자캐오는 생각했습니다.

한평생 사람들의 멸시와 불평불만을 들어오던 그는
 나름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너희더러 세금을 제때, 제때 내지 말라고 했니?!’
 ‘나도 이문을 남겨야 먹고 살 수가 있지,
 정해진 대로만 받으면, 가끔 정해진 날짜보다 연체하고
 심지어는 떼어먹고 도망가는 이들이 생기는데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어떻게 감당하랴?!’

‘불완전한 사회 안에서 그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걸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악착같이 일해서 드디어 세관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세리인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도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뼈뿔어진 마음과 복수하고 싶은 심정도
 어느 한구석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판단하고 저주하는 만큼이나
 세리들도 당대 사람들을 향해 자기변호와 자기 정당화를 퍼부으며
 서로를,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마땅치 아니하고, 원망하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불합리한 제도 아래 수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일반 시민만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서 죄인으로 비난을 받고 종교 사회에서 밀려난 세리들도
 당시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처지와 조건에 행복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이러한 사회악의 굴레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던 중 돈이 움직이는 것에 민감하고 예민한 세리 사회에서
 자캐오는 문득 전혀 돈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돈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며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현세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던
자신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전혀 다른 가르침과 생활양식으로 살아가면서
그에게 다가간 사람들에게 구원과 행복을 제시해 주고
맛보게 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자캐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세상 인간을 평가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준은 결국 돈뿐이야.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돈 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냥 자기 패배자의 왜곡된 변명거리일 뿐이야.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고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자캐오는
그분이 누구신지 보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고
거리는 인산인해가 되어,
키가 작은 자캐오는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자캐오는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을 공짜로 먹여주고,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분이 누구신지
보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평생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아오던
그에게도 무언가 확실치는 않지만
불편부당한 삶의 탈출구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마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취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여인도 아닌데

떼부자가 될 돈을 얻을 기회도 아닌데
가슴이 울렁거리기조차 했습니다.

자기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벽에 부딪힌 자캐오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큰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마구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숨기라도 하듯
얼굴을 뺏뺏하고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고
다소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무 뒤에 숨어서 훑쳐보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발견하고
반겨주기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감춘 채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들어오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캐오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저기 저 동네 어귀에서부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캐오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딘지 모르게, 웬지 모르게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앉아 힐끗힐끗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자캐오를 발견하시고는 그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자캐오는 벼락을 맞은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의심스러워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눈을 소매로 씻으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틀림없이 자신을 발견한 것만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말씀을 건네십니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캐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황하고 떨리는 가슴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와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뛰어 내려갔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자신에게 아무 잘못도 묻지 않는 예수님.
그저 자신을 바라보며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가이 맞이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자캐오는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신체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애썼던 모든 노력이
이제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반기셨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겠다.'

예수님이 자캐오의 집에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이 질투와 시샘의 눈길을 던지며
불평불만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이 소리를 들은 자캐오는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이 부끄럽고 송구하여
눈물로 뒤통이 된 모습으로
잘 나오지도 않는 말을 더듬거리며,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자캐오는 돈으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씻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캐오는 돈으로 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돈을 많이 굴리는 것이 오직 승리와 행복한 인생의 귀결이라고 여기던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와 새 삶의 결의를 다지는 자캐오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자캐오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거룩해진 자캐오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그토록 매달려 오던 돈다발을 꺼내는 자캐오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그토록 목매어 기다리던 부자의 꿈을 내던지는 자캐오를 바라보십시오.
 현실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던 자캐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어느 누구하나 지칭할 것 없이, 사회 내외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던 세리 자캐오를
 아무 지적이나 별이나 다짐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반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변화되는 자캐오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부자가 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현세적인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닌데도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고개 숙임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 마음속에서 부끄럽고 부족하고
 어딘지 모르게 조금 모자라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던
 그래서 답답하고 깡깡하며 허전했던 자신을
 땀 흘려주시고, 꼭 채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후
 자캐오는 변화됩니다.

아니,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적인 충만함으로 행복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완성된 듯한
인간 조건을 경험하는 자캐오.
자캐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이 주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다시 한번 자캐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눈빛이 자캐오인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아무런 조건과 요구를 하지 않으시면서
나를 반기시고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모든 무시와 멸시
친구와 사회에서 당했던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만 놓았던
내 아픔을, 내 응어리를, 내 아쉬움을, 내 갈증을
풀어 놓아 보십시오.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안아 주시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평안히 머물러 보십시오.
하느님의 품 안에 안겨 쉬십시오.

(☞ 약 20분 가량 침묵 속에서 각자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뒤, 그간 천사와 하느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과 느낌을 적어보십시오.

(1)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적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이 금방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2) 그 성경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습니까? 또는 어떻게 마음을 흔듭니까?

(3)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캐오와 같은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을 맞아 행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여 행복하고 구원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 위 질문들과는 다른, 자신이 기도하면서 다가온 느낌이나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기도 끝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아주 짧게 마무리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또 자기 주보성인에게 기도를 바치고 마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_____.”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_____.”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님, _____.”

“어머니, _____.”

2. 견진성사 영성생활

-성령께 의지하여

글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땐, 기도하면 꺼진 전등불도 들어오곤 했어요……. 신앙은 어릴 때, 멋모를 때의 얘기 아닌가요?”

“신앙이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저 위안이나 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우슈비츠에서, 총칼 앞에서 하느님이 계시던가요?”

“어떻게 그걸 뿌리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난 죽는데.”

“세상은 험한데 성당에만 가면 편안해요. 성당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둘이

여러분은 어디에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힘을 얻습니까? 옆 사람과 둘이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잘 먹고 열심히 일하는데,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사귀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재산을 유지하는데, 내 자녀들과 후손의 안전과 행복한 미래를 마련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데…….

나는 견진성사를 어떻게 받(았)고 있는지?

주 예수님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과거의 내 처세술과 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수님 사랑

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이 걸어 나갈 인생의 길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생히 살아 나갈 영적 생명을 연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비춰주시고 일러주시는 복음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세례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명을 과감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일상에서 복음을 실현하는 사도가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23절)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되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성령께 의탁하며, 견진성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26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령께 의탁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 나갈 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27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을 펼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비춰주시고 일러주시는 복음의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가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

우리의 일상 안에서, 복음을 실현하려고 할 때, 가끔은 혹시나 잘못되지만 않을까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서는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우쳐줍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29절)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잘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29절) 우리가 기도중에 주님께 귀기울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지’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서는 나와 함께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언제일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견진성사 때 받은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산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맘에 새겨 주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샘솟는 물처럼, 우리가 진리와 완성을 향하여 목말라하는 갈증과 아쉬움을 적셔 주실 것이고, 채워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31-32절)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견진성사에 대해,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교회 헌장 11)라고 이룹니다.

순교자들이 용감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증거 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로써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사도가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견진성사를 통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집성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인용하여, 견진성사의 기원과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사도 8,14-17)”(1315항)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합니다. “견진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하며, 실천이 따르는 말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도록 돕는 성사이다.”(1316항)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도 일생에 한 번 얻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영적인 표지, 곧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겨 줍니다(1317항).

동방 교회에서는 입문 성사의 단일성을 드러내는 의미에서 견진성사가 세례 직후에 집전되고 바로 성찬례 참여가 이어집니다. 라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주교가 견진 성사를 사리를 분별할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베푸니다(1318항).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견진 후보자들은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은총의 상태에 있고, 성사를 받을 의향이 있으며, 교회 공동체와 현세적인 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1319항)

견진성사는 집전자의 안수와,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의 이마에(동방에서는 다른 감각 기관들에도) 축성 성유를 바르면서, 로마 예법에서는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하며, 비잔틴 예법에서는 “성령 특은의 인호.”라고 말합니다(1320항).

견진성사는 세례 서약 갱신을 통해, 세례성사와 유대를 표현하고,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성찬례 중에 거행하게 됩니다(1321항).

말씀

성령께 의지하여(갈라 5,5.16-26; 6,1-2.8-10)

⁵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¹⁶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¹⁷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¹⁸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¹⁹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²⁰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²¹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²²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²³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²⁴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²⁵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²⁶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⁶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² 서로 남의 집을 저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⁸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⁹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¹⁰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견진성사의 영성생활

주님께서서는 견진성사를 통해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갈라 5,5) 우리의 희망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을 궁극적으로 다 합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희망사항을 다 합친, 보다 근원적인 희망인 구원은 바로 오늘 내게 “너는 죄가 없고 또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하느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흠 한 점 없이 깨끗하거나, 나 자신이 나를 돌이켜 생각해봐도 훌륭하게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온전히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만의 온전한 책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를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로마 8,3)

이렇게 구원은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은총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로마 5,2)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너는 죄가 없고 또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심판의 선고를 받고, 성령의 인도로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이러한 심판의 선고를 바오로 사도는 ‘의화(義化)’라고 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미, 마지막 날에 얻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미리 알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쁨에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았다면 당연히 기뻐야 하

는데 기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로마 8,5-6)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을 배워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고 네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웃을 밟고 올라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사회! 다른 이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그 희생이 나의 이익으로 합쳐질 때 비로소 내 행복이 보장됩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삼는 자본주의 경제사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쓸쓸함과 비애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았던 그것을, 언제 다시 다른 이에게 빼앗길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쟁과 경제사회 안에서는 미덕과 성공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사회 안에서는 죽음과 공포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세상에서 주는 평화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찬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시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로마 8,14-16)

우리의 확신에 찬 믿음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현세적인 입신양명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세상의 구원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사도직과 연결됩니다. 주님의 사도직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님에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바치라고 한, 그 사명을 실천하는 직책과 임무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우리가, 나나 우리 가족의 안일과 평온을 얻는 데에서 그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로마 12,1_{ㄴㄷ}) 이렇게 봉헌하는 우리의 노력은, 주님을 세상 안에서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도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박해를 이겨 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로마 8,26-27)

한편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상을 더 가난하고 더 구조적으로 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가난한 이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 경제구조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힘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조정하고 이루실 일입니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 일을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은 단지 핑계가 될 뿐입니다.

넷째,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갈라5,25) 이렇게 세상의 부정과 불의라는 유혹과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수난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호소에 내가 직접 응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1코린 12,7.11) 내가 불의에 맞서 저항하고 고발할 용기를 받았다면, 다른 이는 불의를 이기는 진실을 말없이 실천할 선물을 받았고, 또 다른 이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처럼 수난할 수 있는 거

룩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합쳐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교회의 공동사업이 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 6,2) 그때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곧 주님의 구원사업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일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이룰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로마 8,17,ㄴ)

다섯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데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요한 3,8,ㄱ)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일들을 갑자기 겪게 됩니다. 그 일이 반가운 것이든 아니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이 자신의 삶에 사소한 것이라면, 아무 것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신의 삶에 커다란 부담과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던지며, 당혹해하고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2 ㄴ)

그때 성령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깨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요한 14,26)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 (ㄱ)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일을 겪도록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 (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응하라고 일러 주시는지를, 성경과 성전 안에서 식별하여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c) 발견하고 식별하여 깨달은 것을 성령께서 일러 주신 주님 사랑의 그 방법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요한 15,26_L-27)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사는 삶’, ‘주님의 말씀을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묵상과 나눔

1. 성령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그런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지금, 시대와 세상이 내게 요구한다고 하면서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2. 내가 맺고 싶고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새 빛

† (),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 하느님, 저희에게 하신 일을 완성하소서. 또한 신자들 마음 안에 성령의 은혜를 보존하시어, 신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증언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기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1. 견진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오늘 기도 중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서, 예기치 않은 변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잠기며, 주님 사랑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합시다.

먼저 자세 잡기

이제, 성령청원기도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청하십시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기도합니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 뵙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음속으로 10번 불러 보십시오.

.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조용히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시오.

자, 이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복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내가 어려울 때 여기저기 기대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다 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헤맬 때, 주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 채워봅시다.

말씀

가장 큰 계명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

10²⁵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²⁶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²⁷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²⁸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²⁹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³⁰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³¹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³²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³³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³⁴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³⁵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³⁶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³⁷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 성경구절은 다같이 마음 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이 선교활동을 나가서 겪은 일들을 이것저것, 미주알고주알 보고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며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저쪽에서 율법 교사 한 사람이 거만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마치 자기 자랑을 하듯이 떠벌리며,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떠보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보려는 율법 교사를, 화내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답하는 태도와 말씨를 들어보십시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속셈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시는 모습과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시고는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우쭐해 하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한술 더 떠, 마치 자신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드러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새로운 의제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모습을 보고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허를 찌르시려는 듯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비유의 현장을 그려보고 참여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예리코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를 노리고 다가갑니다.

놀라며 경계하는 행인을 보십시오.

강도들이 그에게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으박지르며, 다짜고짜 그를 때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아 의기양양하여 떠나는 강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털리고, 몸마져 맞아서 신음하는 강도 만난 행인을 보십시오.

너무나 큰 괴로움에 겨워, 힘겨운 신음을 내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동그라져 있는 행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저기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된 채 몸부림치며, 길거리에서 뒹굴고 있는 행인을 보십시오.

억울하고 아파서 괴로움에 울부짖는 행인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고통스럽게 나동그라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주 하느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마침 그때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십시오.

강도 만난 행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이는 사제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할 일이 급해서인지 강도 만난 행인을 그냥 지나쳐서, 길 반대쪽으로 멀리 돌아가 버리는 사제를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지, 교리를 가르치러 가야 하는지, 면담을 하러 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해야 하는 종교 일정에 맞추느라, 그냥 지나쳐가는 사제를 보십시오.

자신을 보고는 멀리 돌아가 버리는 사제를 바라보는 강도 만난 행인의 절망스러운 눈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 레위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강도 만난 행인을 보고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마치 못 본척하며, 길 가 저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보고는 급히 방향을 바꿔 지나치는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서글퍼하는 강

도 만난 행인을 보십시오.

정말 같은 눈초리로 허공을 휘저으며, 자신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강도 만난 행인을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그를 보기는 하지만,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어느 누구 하나 찾아와 ‘많이 아프냐?’고 걱정스런 말 한마디 내 걸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 어루만져주지도 않은 채, 이러 저러한 이유로 자신들의 인생에 빠져, 어려운 이웃은 돌봐줄 틈 없이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덕 도움도 받지 못한채 외롭고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외롭고 서글픈 처지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도 오래전부터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줘도 혹여라도 해코질 할 사람은 아닌지 살피는 내 사고방식을 보십시오.

혹시 함정은 아닐까? 또 다른 위험이 미끼 삼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며 주저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을지, 그 방법을 생각하며, 멀찍이 서서 연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은 아파서 뒹굴고 있는데, 생각에만 잠겨서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고민하는 내 모습을 지나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자기 동포이자 그렇게도 믿었던 종교 지도자인 사제와 레위 마저 그냥 지나쳐 버려, 이제는 희망과 기대마저 품지 못해 허망해하는 강도 만난 행인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행인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나 하면서도 평소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기대조차 던지지 못하는 강도 만난 행인의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 자신을 지나쳐 가는 사람들을 향해 쏟아내는 원망스런 눈 빛을 바라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병자를 훑어보는 모습을 보십시오.

가엾은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측은히 여기며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며 그의 상처와 고통의 정도를 살피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자, 강도 만난 사람이 절실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그렇게도 철석같이 믿던 사제와 레위인 마저 그냥 지나가 버린 다음,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두려움마저 지녀야 했던 강도 만난 사람의 의외라는 듯 대하는 표정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눈초리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주는 사마리아 사람의 손길을 보십시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가 닿자, 너무나 아파서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감히 고맙다는 말도 못 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 옆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되었을 텐데도,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는 사마리아 사람의 넓은 마음을 보십시오.

아파서 표현조차 못 하고, 정신이 없어서 고마운 마음마저 표하지 못한 채, 마치 끌려가듯 었혀 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마저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냥 그렇게 길거리에서 죽어갈지도 모르는 강도 만난 사람이 불행 중 다행처럼, 운명스런 행운을 안은 모습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잡아 준 여관방에 눕혀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십시오.

두 사람을 따라간 내 모습도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새 강도 만난 사람을 간호하며 돌봐주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새벽녘이 되어 조금 회복되는 듯한 그를 보고 안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도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여관 주인에게 맡기며 두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건네며 부탁하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시오.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호기심 어린 태도로, 다른 한쪽으로는 경계하는 모습을 서 있는 율법 교사를 바라보십시오.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와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자신의 현 모습에 대한 질문이신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 조심스럽게 대꾸하는 율법 교사를 보십시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 새로운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인생의 여러 순간을 통해 여러 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고 지나쳐 온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그렇게 지나쳐온 율법 교사와 나에게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적하고 탓하지도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복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하시면서도, 그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걷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안겨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용서와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의 총만한 사랑으로, 마치 연료 탱크가 채워지듯 스며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내 돌 같은 가슴을 사랑으로 녹이시고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며,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오래 안겨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 약 20분가량 침묵 속에서 각자 기도합니다.)

정리하실 시간입니다.

기도를 마치시면서,

먼저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성모님과 자신의 주보성인께 짧게 감사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짚막하게 기도 중에 보고 만난 강도 만난 사람, 지나쳐간 사제, 지나쳐간 레위, 지나쳐간 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눈길을 가슴 속에 되새기시면서, 대화의 내용과 느낌을 적어보십시오.

(1)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적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이 금방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2) 그 성경 구절이 왜 마음에 와 닿습니까? 또는 어떻게 마음을 흔듭니까?

(3)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이 주 하느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모른 척 지나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왜 지나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 위 질문들과는 다른, 자신이 기도하면서 다가온 느낌이나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기도 끝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아주 짧게 마무리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또 자기 주보성인께 기도를 바치고 마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_____.”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_____.”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님, _____.”

“어머니, _____.”

“성 님, _____.”

3. 성체성사 영성생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글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는 신부님이 드리는 거잖아요.”

“앉았다, 섰다, 뭐가 뭔지 정신이 없었어요.”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데 그걸 먹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배부른 것도 아니고…….”

“희생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요? 나도 살기 힘든데 무엇 때문에…….”

둘이

내 가슴속에 지금도 뿌듯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억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과 둘이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생일날 친지들과……, 시험에 합격했던 날……, 첫 데이트하던 날……, 결혼하던 날……, 승리한 날……, 내 집을 장만하던 날……, 가난한 이들이나 환자들에게 땀을 흘려 봉사하던 날……

나는 성체성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실 만큼,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필립보는 가진 것이 없어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아는,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고 하면서,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안드레아에게서 빵을 건네 받으신 다음,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요한 6,11) 예수님께서서 주신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양은 이스라엘 열두 부족 모두 먹을 만큼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아 놓아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턱도 없이 작은 양이지만, 주 예수님께서서 기적으로 부풀려 필요한 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만큼 주 대전에 봉헌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48절, 54-55절) 라고 알려주십니다. 성체성사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는 성체를 받아먹고 삽니다. 성체성사를 영한 신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되어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는 미사 때 예수님의 살인 성체와 피인 성혈을 영합니다. 때로는 성혈이 담겨 있는 성체를 모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영하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고, 예수님께서서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56절)

성체성사를 영하며 신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바치시며 나눠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 받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57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하나되면,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5,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7절)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10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참 기쁨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11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12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사랑을 삽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1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생명의 성사가 우리가 매일 미사 때 봉헌하는 성체성사입니다. 자기자신의 이득만 챙기고, 고개가 뻗뻗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죄많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성체성사를 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하자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16절) 그러시고는 다시 또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17절) 예수님의 구원방법은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사랑의 희생제물인 성체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요한 21,6) 라고 제안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십니다.”(7절)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물에 오르자, 예수님께서서는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빵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12절)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새삼 그분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성체성사를 영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심을 알아차리고,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확고히 믿게 됩니다.

우리는 성체 성사를 모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 세상 안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사랑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 주님과 하나되어 세상을 구하려 나갑니다.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성체성사에 대해,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한다. 이렇게 봉헌에서나 영성체에서나, 똑같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모든 신자는 전례 행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거룩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신자들은 이 지존한 성사로 적절히 드러나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여 준다.”(교회 헌장 11)

영성체(성체를 모심)로써 주님과 온전히 결합되어 하나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양식을 얻습니다. 참으로 영성체는 주님과 그리고 신자들과 하나 되게 하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세상과 하나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고 세상을 위한 또 하나의 성체로 나를 봉헌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집성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고 이룹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 그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1-56)”(1406항)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으며, 이를 기억하고 재현하기 위해 교회는 최고의 정성으로 성체성사를 거행하며, 주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 백성과 함께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성찬례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례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 단 한 번 영원히 봉헌하신 찬미와 감사의 제사에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를 참여시키시기 때문이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1407항)

우리는 성찬례를 통해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뵈오며,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체성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됩니다. “성찬례 거행은 언제나 하느님 말씀의 선포,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특히 아드님을 주신 데 대한 감사, 빵과 포도주의 축성,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전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요소들은 하나이며 동일한 예배 행위를 이룬다.”(1408항)

교회는 성찬례로 주님의 구원업적을 기억하고 재현하며, 성체성사를 봉헌하는 순간 주님께서서는 구원의 희생제사를 이루십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한다. 곧,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 업적에 대한 기념인 것이다. 이 구원 업적은 전례 행위로 현재화한다.”(1409항)

주님께서서는 사제의 성찬례를 통해, 빵과 포도주 안에 몸소 현존하시며, 구원의 희생제사를 봉헌하십니다. “새 계약의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제들의 직무를 통해서 활동하심으로써 성찬의 희생 제사를 드리신다. 그뿐만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재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신다.”(1410항)

교회에서 유효하게 성품을 받은 사제들만이 성찬례를 집전합니다(1411항).

사제는 성령의 강복을 청하며, 예수님께서 최후만찬에서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며 성찬례를 봉헌합니다. “성체성사의 본질적인 표지는 빵과 포도주이다. 사제는 이 표지들에 대한 성령의 강복을 기원하며,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 이는 내 피의 잔이다.”하신 축성의 말씀을 선포한다.”(1412항)

주님께서서는 사제의 축성 언어를 통해 빵과 포도주 안에 실체변화를 통해 실존하십니다. “축성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실체 변화가 이루어진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는 살아 계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으로, 실재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신다.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분의 영혼과 천주성과 함께 현존한다.”(1413항)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계속하여 성찬례를 통해, 산 이와 죽은 이의 죄를 사해주며, 영적 물적 은총을 베푸십니다. “희생 제사로서 성찬례는 산 이와 죽은 이들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도 바치는 것이며, 하느님께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바치는 것이다.”(1414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대죄를 씻고 성체성사에 참여합니다. “영성체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의식한다면, 먼저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야 성체를 모실 수 있다.”(1415항)

영성체를 통해 주님과 하나되므로, 소죄를 씻고 대죄를 피하게 보보해 주며, 주님과 형제자매들과의 연대가 강화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 거룩한 영성체는 주님과 이루는 친교를 증대시키며, 소죄를 용서해 주고, 대죄에서 보호해 준다. 성체를 모시는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 사랑의 유대가 굳건해지므로,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일치도 강화한다.”(1416항)

우리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과 하나되고자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성찬례 거행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모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성체를 모실 의무를 부과한다.”(14

17항)

우리는 성체조배를 통해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하며 흠숭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체성사 안에 계시므로 그분을 흠숭의 예로 공경해야 한다. 성체 조배를 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흠숭의 의무를 이행한다.’”(1418항)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과 닮아 가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받으며, 천상 교회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성부께로 건너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찬례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곁에서 누릴 영광의 보증을 주신다.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을 닮고, 이 세상의 순례 길에서 늘 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이미 천상 교회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결합된다.”(1419항)

말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에페 2,13-22)

2¹³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¹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치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¹⁵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¹⁶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¹⁷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¹⁸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¹⁹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²⁰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²¹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²²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체성사의 영성생활

주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에페 2,13_L)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에페 2,14)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담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만아들이라는 유대민족과 다른 민족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인간의 편애의식과 그에 따른 인간의 차별구조를 없애시고 평등을 선포하셨습니다(요한 2,13-22 참조).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에페 2,15_L) 또한 주님께서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느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가나안 여자의 믿음-마태 15,21-28), 당신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의 새 백성, 곧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에페 2,16)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이웃을 동시에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신 하느님과,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야 할 이웃!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과 생명을 받고, 주는 신앙의 신비를 살아갑니다.

또한 이 신비를 간직한 새 민족인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특혜와 차별이 없는 나라, 원수와 적이 없는 나라, 미움과 증오가 없는 나라, 굶주림과 소외가 없는 나라, 억압과 묵임이 없는 나라, 탐욕과 착취가 없는 나라, 쟁기는 것이 없고 나누는 나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 준 나라는 바로 평화의 하느님 나라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약속이며 하느님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1코린 1,23_ㄱ)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늘과 땅을 봅니다. 곧 우리가 그리는 하느님 나라와, 지금 여기서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하느님 나라를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본다면 현실은 지옥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을 지옥으로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떠나 신심 속으로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피이지 희망을 성취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더럽고 혼탁한데, 한 사람만 세상에서 건져 성당과 종교생활이라는 깨끗한 여항에 넣는다고 하느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찾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고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을 어떻게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 1,24) 나를 내어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도 없습니다. 욕망뿐입니다. 조금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 자신의 희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희망을 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놓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로마 8,11)

다섯째, 십자가는 세상의 죄악을 모두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원망과 탐욕과 질시의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의 대표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5_ㄴ) 주님을 따르는 길, 복음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길은 바로 이 모욕과 수치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한 몸에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질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세상에 희망을 둔 이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3-25)

여섯째,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생명을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님께서 주는 애정과 음식을 받아먹고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에페 2,22)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세상에 양식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세상에 양식으로 내놓음으로써, 우리는 성체성사를 선포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1코린 11,26)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나와 하나 되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애쓰자꾸나! 나와 함께 평화의 하느님 나라를 만들자꾸나!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도 성 바오로는 성체성사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_ㄴ) 그리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콜로 3,15-16_ㄴ,17)

묵상과 나눔

1.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2. 주님께서 만드시는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새 빛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코린 11,24)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코린 11,25)

3-1. 성체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오늘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핵심 부분이랄 수 있는 성체성사의 제정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성체성사는 예수님 십자가상 제사의 본질을 표현하는 표상이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통해 건네주시고, 우리와 하나되는 신비입니다.

오늘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생명을 받아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 새로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족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합시다.

먼저 자세 잡기

이제, 성령청원기도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청하십시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 뵙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음속으로 10번 불러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조용히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시오.

자, 이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성체성사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 뵈옵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생명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주님과 하나되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얻어 누리기로 합시다.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하기 보다, 그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심(루카 22,7-20)

22 ⁷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⁸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⁹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¹⁰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¹¹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¹²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놓은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¹³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¹⁴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¹⁵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¹⁶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¹⁷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¹⁸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¹⁹예수님께서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⁰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 성경구절은 다같이 마음 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읽습니다.)

내 몸을 떠 올려 봅시다.
 태초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시고,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봅시다.
 나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눈빛을 느껴보십시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담뱃받아서 내게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안고 기뻐하시며 고이고이 키워주시는 모습을 보십시
 오.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님께서 먹여주시던 음식들을 기억해 봅시다.
 내가 즐겨 먹던 부모님의 음식을 바라보며,
 그 맛을 느껴봅시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느껴봅시다. 얼마나 정겹고 행복했는지?!

자라면서 점점 우리가 습득하고 받아먹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받아들이던 사회의 사상과 문화
 사회 체계와 규정과 규율과 제도들
 사회의 예절이라고 배워왔던 관습과 처세술들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문화와 사회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와 문화에서 들려주는 좋은 말귀들을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가슴에 들려오는 선현들의 좋은 글귀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관과 주제어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떠 오르는 좋은 생각과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과 동네와 직장 사회에서 내가 꿈꾸어 오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선한 생각들과 좋은 생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건의하고 바라고 요구한 것 말고,
 내가 진실하고 충실하게 직접 실천해 와서
 오늘 내 삶의 일부가 된 좋은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런가하면, 우리는 마귀들로부터 탐욕스런 욕망들도 받아먹고 살아왔습니다.

악마가 나를 유혹하며 내 안에 유혹들을 심어 놓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그 악마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라보십시오.
어떤 유혹은 잘 뿌리치고
어떤 유혹은 솔깃해하고
어떤 유혹은 훌쩍 받아먹고, 곧바로 빠져 넘어가는지 살펴보십시오.

악마가 내 맘속에 심어 놓은 재물에 대한 집착과
부자와 부유한 생활환경을 동경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악마가 내 맘속에 심어 놓은 권력에 대한 갈망과
그 권력을 움켜잡으려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악마가 내 맘속에 심어 놓은 명예에 대한 허망된 염원을 품고,
그에 어리석게도 도취해 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를 향한 비난과 증상모략을 퍼붓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앞길을 막는 듯한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던지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사랑만 하고 사는 듯한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제쳐놓고,
누군가를 피하고,
누군가를 향해 질투와 시샘의 감정을 키우고
나도 모르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마음속에서 분노를 키워 놓고,
언젠가 폭발할지 모르는 그 분노 속에 갇혀 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먹는 수만 가지의 양식과
사상, 문화, 정신, 이념 등이 나를 어떻게 키우고 있고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삶을 이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자양분이 될 새로운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복음 말씀과 행적 중에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온 말씀과 행적을 떠올리고 잠겨봅시다.

마치 좌우명처럼 내 삶의 양식이 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내가 세례성사를 받을 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내가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그 때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했는지 되새겨 봅시다.

내가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나설 때의

그 날아갈 듯만 했던 순간을 되새겨 봅시다.

내가 성체성사를 영하며

그 행복에 겨워했던 그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성체성사를 영하며

주님과 하나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깊고 그윽한 사랑 속으로,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일치와 평안함 속으로

파고들고 머물고 싶은 내 모습을 되새겨 봅시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상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풀어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로 들어가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 알려주시는 하늘나라의 신비에 관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평소에 내 가슴 속 깊이 다가와 심어져 있는 말씀을

계속 연상하고 되새기고 계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기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내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어 주시는 빵을 받아먹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십시오.

내 몸 전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채워 주시는 순간에 젖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구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심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예수님께서 내어 주시는 생명의 잔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어 주시는 생명의 피를 받아마시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신 인류구원의 사명을 마침내 이루고 말겠다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열정과 희생적인 헌신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러내리신 피가

내 몸에 떨어져,

나를 정화시키고,

내 죄를 씻어주시며,

나를 새롭게, 새 살로, 새 인생으로

새로 나게 해주시는 모습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마치 해독제처럼, 나와 우리 세상을 정화해 주고
새로운 빛으로 밝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고 몰아내며
주님 사랑으로 꼭 채워지는 충만함과 풍요함을 맞으십시오.
내 온 몸을 주님의 살과 피로 교체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 온 몸을 맡기며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봅시다.

예수님이 내어 주시는 성체성사를 영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큰 기쁨과 행복한 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그렇게도 원하고 갈망했던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에 오래 오래 머물러 잠겨 있으십시오.

나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느껴보십시오.
견잡을 수 없는 사랑의 큰 물결과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과
주님 품에 안겨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씻어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서 얻는 평화 속에 잠겨 계십시오.

(☞ 약 20분가량 침묵 속에서 각자 기도합니다.)

정리하실 시간입니다.

기도를 마치시면서,

먼저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성모님과 자신의 주보성인께 짧게 감사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되고 느끼고 만끽했던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화와 초월을 조심스레 간직하시고, 예수님과의 순간과 느낌을 짝막하게 적어보십시오.

(1)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적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이 금방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2) 그 성경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습니까? 또는 어떻게 마음을 흔듭니까?

(3) 이 성체성사 제정의 내용이 주 하느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여 돌아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믿으십니까?

성체성사를 영하며,

주 예수님께서 함께 구하시고자 하는 이들의 얼굴과 형편을 살펴보십시오.

성체성사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각에 예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께 봉헌하며,
내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성체가 되어,
그분에게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지 헤아려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하며,
함께할 것인지 다짐해 봅시다.

* 위 질문들과는 다른, 자신이 기도하면서 다가온 느낌이나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기도 끝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아주 짧게 마무리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또 자기 주보성인께 기도를 바치고 마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_____.”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_____.”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님, _____.”

“어머니, _____.”

“성 _____ 님, _____.”

4. 고해성사 영성생활 -가장 좋은 길

글씨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저 적당히 믿으면서 살면 되지.”

“누군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나요? 누가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상대는 잘못도 안 비는데 그냥 왜 용서해 줘요? 나만 우습고 만만한 사람 되는 거지.”

“죄는 용서받았다고 해도 상처는 남지 않나요? 못을 빼도 못 자국은 남잖아요.”

둘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고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정말로 실천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사랑을 잡아 놓고 있습니까? 옆 사람과 둘이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준비 때문에, 도와 주고 함께해야 되는 줄 알지만, 지금 당장 내 코가 석 자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나 말고도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두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니까, 똑같은 죄를 짓거나 실수할까 봐

나는 고해성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주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런 여인은 모세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스승님의 생각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라고 이르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고발하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그 여자만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10절) 그 여인이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11절) 라고 부끄럽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11절) 라고 하시며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또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본분기를 보여줌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법에 의해서 벌을 받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그냥 둘 수 없다고 여기면서, 복수를 하거나 사법절차 대신 벌을 주고자 테러를 합니다. 이상은 모두 윤리적인 대응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단지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말씀만 해주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11절)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짓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조건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사도 성 바오로는 이 은총에 대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 받았습니다.**”(로마 5,12-15)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 주셨고...**”(히브 9,26-28)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심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스스로 지니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인간에게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댓가로 벌을 주시는 이른바 상선벌악을 기초로 한 윤리주의적인 대응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영성주의적인 대응을 해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거나, 처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무런 벌을 받고 용서받는 것을 보고, 그렇게 또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마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통스럽게 죽어가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났던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봐, 예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예수님께서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21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평화의 사도로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 용서할 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떠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22-23절)

예수님께서서는 첫 번째 발현하실 때 없었던 제자 중 토마가 믿지 못하자, 여드레 후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 상처를 보여 주시면서 의심을 버리고 믿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토마의 의심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마는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28절) 라고 고백하며 믿음이 살아났고, 평화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29절)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용서하시며 다시 살려주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새로 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나도 용서하며, 용서와 화해의 사랑을 살아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이용하여, 계속 죄를 짓고 살 것인지.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고해성사와 관련하여,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었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교회 헌장 11)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함으로써 주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과 멀어진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이 성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주님의 사랑이 됩니다. 또한 이 성사 안에서, 힘을 회복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주님처럼 사랑을 완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집성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치유성사의 첫 성사인 고해성사의 기원에 관하여, “부활하신 날 저녁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1485항)라고 이룹니다.

세례로 주님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새로 났지만, 또 다시 악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고해성사를 받고 다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지은 죄의 용서는 회개의 성사, 고백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 성사라고 불리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주어진다.”(1486항)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거룩한 인격이 손상되며,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손상시킨 인간관계와 사회악의 증가로 세상의 죄악이 그만큼 커져갑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예와 그분의 사랑을 손상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신의 인간적 품위와, 그리스도인이 그 살아 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영적 선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1487항) 그러기에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중대한 악이 없고, 죄인 자신과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없다.”(1488항)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깨우친 이는 회개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죄로 잃었던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은, 자비로우시고 인간의 구원을 염려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서 생기는 변화이다. 자신과 남을 위해 이 귀중한 선물을 청해야 한다.”(1489항)

주 하느님의 무한하시고 자비로운 사랑에 감읍하여,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와 참회라고 불리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 전향은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후회,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과거와 미래에 관계되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희망으로 힘을 얻는다.”(1490항)

“고해성사는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와 사제의 사죄로써 이루어진다.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는 통회, 사제에게 죄를 말하는 고백, 그리고 보속하겠다는 결심과 그 이행이다.”(1491항) 보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거나, 아직 보속을 못했다고 해서 영성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주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사해지고, 보속을 통하여 내가 지은 죄를 생겨난 폐해를 보상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속을 이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지면, 더 작은 보속을 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맑은 영혼을 가지면 통회하게 되는데, 먼저 주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받고 느끼

면, 우리는 자연스레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물밀듯이 닥쳐오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받아들입니다. “통회라고도 하는 참회는 신앙의 동기로 일어나야 한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통회를 하였다면 '완전한' 통회라 하고, 다른 동기에 근거를 두었다면 '불완전한' 통회라 한다.”(1492항)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해서 기억해 낸,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대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소죄의 고백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이를 강력하게 권고한다.”(1493항) 많은 경우 소죄는 양심성찰이나, 미사 중 고백의 기도와 영성체로 사해됩니다.

우리는 고해성사 중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범하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교리서는 또한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에 대해 말합니다.

- 고백자에게 은총을 회복시켜 주는 하느님과 화해
- 교회와 화해
- 죽을죄로 받게 되었던 영벌의 사면
- 죄의 결과인 잠벌의 적어도 부분적인 사면
- 양심의 평화와 안온, 영적 위안
-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의 증대”(1496항)

전쟁이나 재난 등의 아주 위급하거나 죽을 위험이 처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개별 고백을 하면서 고해성사를 봅니다. “개인적으로 대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만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이다.”(1497항)

죄는 고해성사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서 용서를 받지만, 남아 있는 죄의 결과인 잠벌은 대사로 사면 받을 있습니다. “신자들은 대사로써 자신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죄의 결과인 잠벌을 사면 받을 수 있다.”(1498항)

말씀

사랑(1코린 13,1-13)

13¹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2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뽀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5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6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7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8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⁹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¹⁰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¹¹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¹²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¹³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고해성사의 영성생활

주님께서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나처럼 사랑을 완전히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고해성사를 꼭 보아야 하나요? 난 죄 없어요! 착하고, 나쁜 짓 안하고, 남 울리지 않고, 열심히 자기 할 일 다하고, 살다가 기회 있으면 남도 도우면 되지! 거기서 더 이상 뭘 어떻게 살아요?” 고해성사는 단순히 죄를 씻는 세탁소에 불과한 것입니까? 성사가 은총이라면 고해성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은총입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에게 말하는 완전한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일종의 자기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인간이 남을 돕는다면, 몇 명이나 돕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자기 성찰을 유도하여, 죄를 만들어

안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우리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란 어떤 길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뿔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1코린 13,1-2) 전시회에 가서 훌륭한 그림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일까? 아니면 그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일까? 화가의 마음이 아름다운가 아닌가를 말하기보다,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이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자기가 느낀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인정하고, 표현하며, 격려해주고, 자기가 본 그 어떤 것을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둘째,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로마 13,8_ㄱ) 인간 모두는 누구나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무는 인간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살아 있어야, 죽은 후에도 사체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라면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의무는 인간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의 완성을 향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의 완성에 다다랐다고 인정할 만해서 머리 숙여 존경을 표시할 만한 이들의 공통점은 그분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의 시간과 재산의 얼마를 쪼개 주는 순간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는 삶의 태도와 방향입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사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코린 13,3)

셋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자면, 하고 싶은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모두를 다 합친 것을 다 포함하면서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로마 13,8c-9)

넷째,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1요한 4,7)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줄 모르거나, 자신의 사랑을 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사랑이 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망설이기까지 합니다.

미움이 결심이 아니라 생겨나는 감정인 것처럼 사랑도 우리에게 생겨나고, 차곡차곡 스며드는 감정입니다. 사람을 자주 보면 그가 반가워지고 정들기 시작하고, 안보이면 기다려지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을 키워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편 자신의 사정상, 살기 위해서, 마음먹은 만큼 사랑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천막을 벗더라도 알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생명이 삼키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2코린 5,3-5) 이미 앞 과에서 보아온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도록 이끄시며, 채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지 않고, 사랑은커녕 미움만 앞서는 데. 차라리 남이라면 주님이나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가족인데도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상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은커녕 배신을 당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용서를 청한 이가 그 중에 하나라도 있었는가를 고려하기보다, 주님께서 사람의 무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죽이려고 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남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행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특별한 의미도 없이 행동합니다. 가령 그 행동이 남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은 그 행동이 그렇게 문제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는 상대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그도 모르고 한 짓입니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32)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는, 아니 용서라는 그 사랑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준 것이고, 심어 준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형태로 사랑을 주시고, 매일 아침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느님 사랑, 바로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고 상대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알코올, 도박, 마약 중독은 일종의 병입니다. 그것은 결심하고, 강한 의지로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병입니다. 암환자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단지 아프고 괴로운 감정이 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 앞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1코린 12,26-)

상대를 보라. 상대의 상태와 현실을! 그러면 미움보다는, 같은 감정(동정)과 감싸주고 싶은 사랑만이 자신의 가슴 전체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콜로 3,12-13)

※코린토 1서 13장을 보면서 두 가지 방법을 취해 봅시다.

첫 번째로 4절부터 8절 첫 문장까지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나’라는 단어를 넣어 읽어 봅시다. 동시에 그 줄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아예 나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의미로는 하느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죄책감만이 생겨납니다. 그보다는 읽고 또 읽으면서, 하느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고 자리 잡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신 하느님께 청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으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에페 1,23)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을 키우라는 부르심입니다.

묵상과 나눔

1. 주님의 사랑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과 망설임이 사라졌습니까?
2. 위 코린토 1서 13장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항목 중에 내가 더욱 키워 나갈 항목은 어느 것이며, 내가 빨리 얻어야 할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새 빛

고백자의 통회의 기도

-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4-1. 고해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이제 모두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기도하시면서 평소에 살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느낌과 생각들,
살면서, 어딘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거나,
씻어지지 않는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향해 들끓어 오르는 분노로 힘겨워하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 중에 주님과 함께하시면서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중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 라고 하신 주님 안에 머무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서기로 합시다.
여러분, 성당에 오시니까 좋으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좋아서 입이 이렇게 짹 벌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느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천사를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청하십시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

다.

◎ 아멘.”

눈을 지긋이 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음 속으로 10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조용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저를 따라서 기도문을 천천히 마음 속으로 바쳐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와 같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장애를 몰아내시고
예수님, 주님을 모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마음 깊이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 말하고 싶습
니다.

예수님,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 가까이 와 계신 것 알지만 현존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아무런 부끄럼이나 겁도 없이, 용감히 예수님과 대화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예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찬미 받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저의 약함을 아시죠.
어머니,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아시죠.
어머니,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분께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도 아기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도 기쁘시죠.

어머니, 어머니께서 느끼신 그 기쁨을 저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희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어머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현존 안에 지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부드럽고 어머니다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계속 숨을 고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조용히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시오...

자, 이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기도할 복음 구절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하여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는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고 다시 둘째 아들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이를 알고 불공정하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잃었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 축하하자고 말하여, 용서와 화해의 장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3.11-32)

15 ¹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²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³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¹¹“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¹²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¹³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¹⁴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¹⁵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¹⁶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¹⁷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¹⁸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¹⁹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²⁰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²¹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²²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²³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²⁴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²⁵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

리를 들었다. ²⁶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²⁷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²⁸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²⁹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³⁰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³¹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³²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 성경구절은 다같이 마음 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읽습니다.)

자 이제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 누가 모여들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는 그동안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찍혀 가진 것은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은커녕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사람들 등쌀에 어딘지 모르게 고통을 받고, 천대를 받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어리벙벙해합니다.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땡땡거리는 듯하게, 안하무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적을 받고, 혼이 나고, 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예수님께서서 저런 사람들을 반기고 있는가?!’하며,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와 멸시하는 마음으로 찌려보고, 그들을 반기는 예수님께는 서운함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디 대놓고 저런 사람들이 몰려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뭐가 잘났다고, 숨어서 뒤로 몰려가야 할 사람들이,

저렇게 드러내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을 왜 반기고 있는가?

죄인들을 피하고, 깨끗하고 선명해야 할 사람이,

어찌 죄인들과 벗이라도 된 양인 듯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면서도, 돈 앞에서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던가?!

라고 하면서 비난과 질책과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연상해 봅시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그 집의 많은 일꾼과 함께

농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매일 가업에 매여있다고 여기던 작은 아들이
 일에 지치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다소 지루하게 여기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이나 하려고 태어났냐?’
 ‘내가 이렇게 일해서 아버지에게만 도움이 되지, 내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친구랑 어디 한번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매일 이렇게 일만 하다가 늙어 가는 것이냐?’
 형이 옆에서 아무리 달래고 말려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십시
 오.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작은 아들이, 드디어 집을 나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작은 아들은 언제 독립하겠다고 말을 할 것인가 하며, 아버지 눈치를 보다가
 마침내 날짜를 잡아 아버지께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의 것인양,
 아버지가 상속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누구에게 상속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를,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이미 상속받은 것마냥 여기고,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청합니다.

그저 어저께까지만 해도 투덜거리기는 해도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는 무척 놀랍니다.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배반이라도 당한 듯한 서글픈 마음과
 분노에 이글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밖에 모른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큰 소리를 내고 별이라도 내릴 기세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던 아버지가
 마치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는 식으로

자식의 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께 말도 안 되는,
주객이 전도된 요구를 해대는 아들에게
결국 아버지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들어줍니다.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몫이라고 여겨져 나눠준 재산을 들고,
작은 아들은 기뻐 날뛵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나눠 받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나눌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쪼개어 나눠준 아버지의 찢어진 가슴을 바라보십시
오.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큰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어, 저렇게 해도 되네...'
어안이 병병하고, 당황하며, 불쾌해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부러워하는 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일만 시키시는 분이
작은 아들에게는 저렇게 큰 재산을 쥐어 주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래도 되나?!

작은 아들은 자신의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신의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과
형의 우정을
짓밟았고, 무시하고, 소외시켰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그리고 자기 집 일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저 자신의 것을 가졌다는 마음만으로
신나고 기쁘고 원대한 꿈을 이제 펼쳐나갈 포부만으로 넘쳐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은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고 이루어야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동분서주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겨운 일이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작은 아들을 보십시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막히고, 손해보며,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작은 아들의 고생스런 삶을 바라보십시오.
 될 듯, 될 듯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고,
 고생만 역수로 반복하는 가운데
 작은 아들은 지치고 포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치고, 좌절한 작은 아들은 그나마 남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얻을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점점 미뤄지고
 기다림과 인내도 스러져 가며
 결국 실패와 좌절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한 채,
 얼마 남지 않은 재산으로 여자와 술과 마약으로 빠져들어 가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
 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한 잔, 두 잔, 한 걸음, 두 걸음, 채워지지 않는 허망한 감상에 젖어
 현실에서 벗어나고만 싶고, 포기하고만 싶고,
 이젠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대신 해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적적으로, 그냥 이루어질 것만을 허망하게 기다리며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포기과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더 이상 감당할 수도, 더 이상 감내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 작은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더 이상 노력을 쏟아부을 여력마저 남아있지 않은 작은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젠 그나마, 잠시라도 자신을 현실에서,

실패와 좌절에서, 허상으로나마, 감상으로나마, 채워주는 듯하던 욕구들이
그나마 돈이 떨어지자, 다 무산되어 버립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던 순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열정과 자신감과 의지로 버텼지만,
그나마 돈까지 떨어져 나가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는
재산도 자부심도 꿈도,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꿈과 거창한 기대를, 다 뒤로 하고
이젠 길거리에서 자기 한 몸뚱어리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아들은 자신의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눈을 뜬 작은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일을 하는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자신의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여기던
실망감과 채워지지 않던 그 감정보다도
더 초라하고, 더 허기지고, 더 허망해진,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서글퍼진 자신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집을 나올 때의 그 패기와 열정은 다 어디로 가고
폐인이 되다시피 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술이라도 한잔 채워 주었을 법한 이웃들을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찌든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꿈은커녕,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친구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상 인심에 둘러싸여
자승자박처럼 스스로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당연히 그러기에 당연히 내 것을 챙길 수 있고 챙겨야만 한다고

자기주장을 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다시피 하며 받아내던 그가

이제 자신의 처지를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한편 그 동안, 아버지는

독립하겠다고 집을 나선 작은 아들을 떠나 보내던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으로는 뺨뚫린 마음을 가눌 수 없어

매일 집 밖으로 나가,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동네 어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고생은 안 할까?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잘 지내고는 있을까?

밥은 굶지 않고, 끼니라도 거르지 않고 잘 지낼까?

혹시라도 돌아올까?

언제쯤이나 돌아올까?

혹여 지나다가 인사라도 드리러 돌아오지는 않을까?

누군가 그 근방에서 지나치다가 작은 아들에 대한 소식이라도 들려주지 않을까?

작은 아들을 기다리다 지친 마음에

근심과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면서

이마에 주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 버린 아들이지만

그래도 피붙이 아들이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런 아버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문밖에 나와서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며

동네 어귀 밖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떠나 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배반하고 떠나 버린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자기 잘났다고 뻘대고 집과 가족과 벗과 복을 차버리고 나간 아들이,
다시 살아서 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어쭙잖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 가득하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작은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에, 기쁨에 넘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서 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비록 초췌해져서 돌아온 작은 아들이지만,
저 멀리에서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작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아들을 향해 한걸음에 내딛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부끄럽고 죄 많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저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겨,
그를 반깁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라도,
그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 마음을 먹고 돌아온 것이라고 여겨 그를 반기십니다.
그는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잘못을 열거하는 자식의 입을 막고 종들에게 이릅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일 때,
어비지 곁에 아들로서 누리던 그 모습 그대로 복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복원시켜 주시고
 돈도 명예도, 인간성마저도 만신창이가 다 된 아들을 창피하다고 남사스럽다고
 뒷방에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잔치를 벌여줍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반기고
 다시 그에게 전과 같은 자리를 주고
 전과 같이 환대해 잔치를 벌여주는 것을
 모두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작은 아들이 초췌하게 돌아온 모습을 보고,
 고소해하며, 속 시원해하며, 흥보면서
 작은 아들이 내쳐지기라도 하던지,
 별이라도 받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잔치까지 벌여주니
 속에 불이 타오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말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의 반응을 들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안아주던 그 모습 그대로
 큰 아들을 찾아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빠지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내버려 둘만도 한데
 사랑 가득한 인자하신 아버지는 빠진 큰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큰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려고 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께 하소연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시다.’

큰 아들은 어쩌면 작은 아들처럼 자신도 독립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차마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작은 아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
자신은 나가지 않고 그냥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오리라는 때만 기다리며,
그 때를 맞이할 설렘으로 그나마 만족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큰 아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커녕
계속 부려먹기만 하는 아버지가 야속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계속 종처럼 부려 먹기만 한다고 불평불만을 품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던 그에게, 작은 아들이 망해서 들어오니까
아버지께서 반가이 맞아주며 잔치를 벌려주었노라는 소식이
불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이럴수가!’

심지어는 ‘뭐야,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다시 반으로 쪼개진 거야?!’
어쩌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성공이라도 해서 다시 돌아올까봐
망해서 다시 돌아와도 혹여라도 마음 착한 아버지가 그를 다시 받아들이실까봐
그동안 내심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불안과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
삐질 대로 삐진, 심사가 뒤틀리다 못해, 폭발하기까지 이른 그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물이라는 재산과
아들이라는 재산.

아버지는 재물이라는 재산보다는
 아들이라는 생명의 존재가 더 크고 귀중하여
 결코 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은 다 네것이 아니냐?
 결국 다 네것인데 무엇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호적에서 지워질 뻔한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
 없어진 아들이 다시 생긴 것이 아니냐?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는 큰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
 재물은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아들은 없어지면 그만인 것,
 다시 생겨도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니며,
 그 아들에 대한 내 사랑하는 마음, 내 기억, 내 애정이
 다른 아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지,
 한번 존재하던 그 아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사랑이 아니지 않더냐?
 그런데 사그라진 듯한, 지워진 듯한 내 사랑의 대상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더냐?
 내 사랑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내 존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재출현으로
 다시 생생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냐?
 내 아들의 재출현으로
 내가 다시 살맛 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아니 기쁘더냐?

우리의 생의 언저리마다,

주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불평불만을 터트리고
주님께 은총을 강요하던 우리를,
그저 주님 대전에 나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을 향하기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반기시고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품 안에 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안겨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드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주 하느님 품에 안겨 오래오래 머물습니다.
평안하고 포근한 그 품에 안겨서 쉬십시오.

(☞ 약 20분 가량 침묵 속에서 각자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뒤, 그간 천사와 하느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과 느낌을 적어보십시오.

(1)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적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이 금방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2) 그 성경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습니까? 또는 어떻게 마음을 흔듭니까?

(3)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는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요?

자신의 몫을 챙겨나가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작은 아들을 반겨주시는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큰 아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시겠습니까?

큰 아들을 타이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 위 질문들과는 다른, 자신이 기도하면서 다가온 느낌이나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기도 끝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아주 짧게 마무리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또 자기 주보성인에게 기도를 바치고 마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_____.”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_____.”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님, _____.”

“어머니, _____.”

“성 _____ 님, _____.”

5. 병자성사 영성생활 -고통에서 영광으로

글씨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늙으면 병들고 죽기 마련인데.”

“또 살면 뭐해요?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는데, 아무도 모르게 빨리 죽어서 추한 꼴 안보이고.”

“이젠 끝났어요. 이런 몸으로 어딜 가서 무얼 하겠어요.”

“난 죽을 수 없어요! 지금 죽으면 내 아내나 자식은 어떡하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저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다니?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둘이

근심 걱정을 할 때나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해집니까? 또 영원히 놓치지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과 둘이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잠을 자면 다 잊어버립니다. 잠시 여행을 다녀오면 깨끗해집니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상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면 길을 알려 주십니다.

나는 성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병자들을 치유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병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죄악에서 건져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자비로우신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루카 6장)과, 백인대장의 종(루카 7장)과 병자들(루카 9장, 18장)을, 회당장의 딸(마태 9장)과 하혈을 하는 여인(마태 9장)과 많은 병자들과 허약한 이들(마태 9장)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구마와 치유의 권한을 주십니다.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마태 10,1)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라고 알려줍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 병이 들고, 병으로 죽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병고와 죽음의 원인인 죄를 씻어주면 구원된다고 여겼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권한은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태 9,2; 마르 2,5; 루카 5,20; 7,48) 라고 선언하시며 치유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루카 1,77)

예수님께서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태 9,2)라고 선언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냥 중풍을 고쳐 주시기만 하면 되는 일을 굳이 죄를 사해준다는 말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논란거리를 만들어주시면서까지, 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의 사함과 인간의 치유와 구원 이야기를 연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를 사해주시는 방안으로 병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므로 죄를 사해주시는 권한을 하느님에게로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양식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마르 2,10; 루카 5,24)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서 병을 고쳐주실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청하는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마르 5,34; 10,52; 마태 9,22; 15,28; 루카 7,50; 8,48; 17,19; 18,42)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냥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시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요, 구원의 길로 접어드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지 사흘이 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있는 것을 보시며, 죽음의 세력에게서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44절) 하고 명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병자에게 병자 성사를 주어 아픈 사람을 낫게 합니다.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마르 6,13) 또 낫지는 않더라도, 병에 걸려 아파하는 환자를 위로합니다. 육은 소멸의 길을 걸지만, 영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오늘 병고에 시달리더라도, 영과 마음은 평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한편 우리는 죄도 짓지만, 우리가 아픈 이유가 전부 우리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서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겪으셨던 그 아픔에 연결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비록 당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주님께서서 세상을 구하시고자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에 믿음 안에서 연결시키고 봉헌할 때, 우리의 병고는 세상을 구하시는 주님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공덕이 됩니다.

우리는 병자 성사를 통해 우리의 고통을 이길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예수님의 인도로 하느님 나라에 갑니다.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병자성사에 대해, “병자들의 거룩한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병자들을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맡겨 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 주시고 낮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하는(야고 5,14-16 참조) 한편,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로마 8,17; 골로 1,24; 2디모 2,11-12; 1베드 4,13 참조)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고한다.”(교회 헌장 11)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당신의 깊은 사랑으로 다가와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는 반드시 병이 낮기 위해 받는다기보다는, 병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이 주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겪으시는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성사이며, 그러한 이유로 더욱더 그리스도 주님과 결합, 일치되기 위한 성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병자성사를 통해 주님께 희망을 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집성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 5,14-15)”(1526항)라고 이룹니다.

교회는 환우들이 하루빨리 병고에서 해방되어 치유될 수 있기를, 병고를 겪으며 그 고통을 주님 구원의 희생제사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기를, 병고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병자성사를 줍니다. “병자성사의 목적은 중병이나 노쇠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1527항)

“신자가 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을 맞기 시작하면 병자성사를 받을 적절한 때가 온 것이다.”(1528항) 죽기 전에 받는 병자성사를 ‘중부성사’라고도 하며, 마지막 성체 성사를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힘을 주는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노자성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중병이 들었을 때마다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성사를 받은 이후 병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1529항)

교리서는 병자성사가 이루어 주는 특별한 은총에 대해 이룹니다.

- “- 병자가 자신과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수난과 결합됨
- 병이나 노쇠의 고통을 그리스도인답게 견디는 데 필요한 위안과 평화와 용기
- 병자가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죄의 용서
- 영적인 구원에 적합한 경우 건강의 회복
-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준비”(1532항)

말씀

고난과 희망과 영광(로마 8,18-30)

8¹⁸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¹⁹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²⁰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²¹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²²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²³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²⁴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²⁵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²⁶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²⁷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²⁸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²⁹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³⁰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병자성사의 영성생활

주님께서서는 병자성사를 통해 “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자기가 처한 현실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믿음직스러운 것보다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은 이유였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것이 허망해진 탓입니까?

“난 곧 죽을 것이니까 아무런 욕심도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수전노 같아지고, 점점 독재를 부리게 되고, 작은 일에도 섭섭해하며,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 인생 경험을 통해 꾸준히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온유하고 너그러우며 내적으로 풍요로워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누구나 먹고, 자고, 입으면서 삽니다. 어떤 이는 “먹고, 입고, 자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합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는 이유가 “먹고살기 위해서”라고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안정되지 않은 생활은, 단지 나이가 들어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의·식·주 해결에 대한 불안감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르는 심리적인 부담은, 육체를 더욱더 고달프고 궁핍스럽게 합니다. 젊을 때보다 끼니 때를 늦추기가 더 힘들고, 옷이나 잠자리를 더 챙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안은 그야말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것은, 자기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굶지 않고 길거리에 내팽개쳐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병마져 걸리게 되면 그의 처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병고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의 투병에 함께해 줄 이가 있습니까? 머리에 떠올리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나의 현재를 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 정도보다 그 이상으로 반비례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몰고 오는 힘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로마 8,20-) 희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사그라지고 말 육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질병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먹고 입고 잠잘 곳이 보장된다는 것입니까? 빠르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나 보험이, 이 불안을 우리에게서 지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부활과 구원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은 우리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서, 허망해하는 현세적이고도 물질적인 보장이 아닙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로마 8,20-)

그런데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로마 8,21)이라는 희망입니다.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어차피 죽을 운명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로마 8,23) 우리의 몸이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유지와 안락함에 대한 걱정과 관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후의 영혼만이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직 병들거나 늙지 않았어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부터라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로마 8,13-14) 죽음의 한계와 육체의 보존과 건강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봅시다. ‘성 프란치스코’, ‘마더 데레사’ 그리고 ‘이름 없는 봉사자들!’ 그들은 가질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낄 만한 처지가 아니라 다 보장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여기서 좋은 일이나 하고 가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힘이 누를 수 없는 이들이며, 죽음에 구애받지 않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보장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6-8)

넷째,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로마 8,24)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남을 위해 헌신하다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돌볼 것입니까?”하는 이런 기본적인 계산도 못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로마 8,30)

다섯째, 성령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 줍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채워 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이러한 믿음과 희망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로마 8,25)리며, 하느님께서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희망을 이루는 삶이요, 희망의 성사를 받는 이들의 은총입니다.

여섯째, 이 희망의 전망 안에서 우리의 질병과 고뇌를 봅시다. 질병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더욱더 절박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질병이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연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오히려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고, 그 구원을 위한 희생을 보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부활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죄의 벌이라고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고통을 성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콜로 1,24)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콜로 1,29) 그리고 고통을 인간의 처참한 모습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정화시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찢러 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7-8.10)

일곱째, 어떤 병자는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아프다 보니 기도는커녕, 아픈 데 신경 쓰느라 주님을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선 기도가 사치요, 한낱 이론적인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습관과 선택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아플 땐 기도고 뭐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눈치 볼 여유도 없더라구요. 내가 당장 아파 죽겠는데. 이리저리 뒹굴면서, 그냥 ‘주님, 주님!’ 하고만 외쳐댔어요. 나중에 말도 안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한 번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통증을 겪고 난 후, 우연히 벽에 걸린 십자가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십자가에 저렇게 생으로 매달렸었다니!’ 하는 생각에 순간 눈물이 흘러 나왔어요. 그 후엔 고통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내가 주님과 합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아프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고통이 왔다갔다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넘기면서 내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모습과 연관시켜 우리는 성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

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3-5) 또한 주님께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께게서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히브 5,7-10)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 구원을 향한 주님의 고통과 연결될 때, 그 고통은 좌절이 아니라 희망의 서곡이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25)

묵상과 나눔

1.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나라오는 희망과,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울 수 있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집니까? 왜?
2. 고뇌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십니까?
3.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채우려는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강한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새 빛

도유(병자 성유 바를 때)

†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와 주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주소서.

5-1. 병자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이제 모두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기도하시면서 평소에 살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느낌과 생각들,
살면서, 어딘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거나,
씻어지지 않는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향해 들끓어 오르는 분노로 힘겨워하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 중에 주님과 함께하시면서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중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 라고 하신 주님 안에 머무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서기로 합시다.
여러분, 성당에 오시니까 좋으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좋아서 입이 이렇게 짹 벌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느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천사를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청하십시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

다.

◎ 아멘.”

눈을 지긋이 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음 속으로 10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조용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저를 따라서 기도문을 천천히 마음 속으로 바쳐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와 같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장애를 몰아내시고
예수님, 주님을 모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마음 깊이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 말하고 싶습
니다.

예수님,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 가까이 와 계신 것 알지만 현존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아무런 부끄럼이나 겁도 없이, 용감히 예수님과 대화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예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찬미 받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저의 약함을 아시죠.
어머니,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아시죠.
어머니,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분께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도 아기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도 기쁘시죠.

어머니, 어머니께서 느끼신 그 기쁨을 저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희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어머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현존 안에 지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부드럽고 어머니다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계속 숨을 고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조용히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시오...

자, 이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기도할 복음 구절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 가고 있어서, 그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청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곧 나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 옷에 손을 대고 낳게 된 여인의 치유기사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말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루카 8,40-56)

8 ⁴⁰예수님께서 되돌아오시자 군중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⁴¹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가 주시기를 청하였다. ⁴²그에게 열두 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는데 군중이 그분을 밀어 댔다.

⁴³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들을 찾아 다니느라 가산을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 주지 못하였다. ⁴⁴그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자 즉시 하혈이 멎었다.

⁴⁵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스승님, 군중이 스승님을 에워싸 밀쳐 대고 있습니다.” 하였다.

⁴⁶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나는 안다.” 하고 말씀하셨다.

⁴⁷그 부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며,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 온 백성 앞에서 아뢰었다.

⁴⁸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⁴⁹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⁵⁰예수님께서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⁵¹그리고 그 집에 가서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⁵²사람들이 모두 아이 때문에 울며 가슴을 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울지들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⁵³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었다.

⁵⁴예수님께서서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⁵⁵그러자 아이의 영이 되돌아와서 아이가 즉시 일어섰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이에게 먹

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다. ⁵⁶아이의 부모는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 성경구절은 다같이 마음 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읽습니다.)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살기 어려운 이들, 환우들, 갖가지 소원들을 청하고 싶은 이들,
 아쉬움을 토로하고 속이라도 풀고 싶어 하는 이들, 억울한 이들,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의 청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거절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맞아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중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야이로는 열두 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동딸이 아파서 쓰러집니다.
 야이로는 평소에 아버지만 보면, 좋아라 반기고 재물을 부리던 딸이
 갑자기 잃어나지도 못하고, 신음하며,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며,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강하고 유다 회당의 책임자였던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자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의사들이나 다른 누구도
 자기 딸을 고쳐주지 못하자
 야이로는 애가 끓고 가슴이 타오릅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데
 ‘무슨 자존심이야?’
 ‘나중에 회당에서 자기를 내쫓는다고 하더라도
 딸이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으랴?!’
 하는 마음으로 한걸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회당장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평생 믿고 따르던 야훼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만 같고
 외면하고 저버리는 것만 같아,
 죄스럽고 괴로운 가슴을 달래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도
 ‘딸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에게 전해준 사람의 말을 듣고는 강력한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향해나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간절한 시절이 있었던가요?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볼 수도 없었지만,
드디어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면서
간신히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 앞에 다다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애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주님, 제 집에 가서 제 딸을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은 회당장의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애원을 들으시면서
회당장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장의 청을 들어 허락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군중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가시는 줄로만 알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해 밀어닥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밀어닥치는 군중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여기저기 좋다는, 내로라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돈만 들었지, 이렇다할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간신히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의 옷이라도 잡을 요량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몸에서 피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기적같은 현상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하게만 여겼던, 수년에 걸쳐 불치의 병같이 자신을 괴롭혀오던
하혈병이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신기하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얼마나 날아갈 듯만 했고
또 안도와 평안함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미의 정이 솟구쳐 올랐을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시고
누구냐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자
그 여인은 갑자기 겁이 납니다.
놀랍고 반가운 여인은 멍칫 서서 숨을 죽이고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힘이 나아간 것을 눈치 채시고는 군중을 향해 물으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베드로가 “스승님, 군중이 스승님을 에워싸 밀쳐 대고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들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불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나는 안다.”**라고 재차 말씀하시며,
그 대상을 둘러보시며 찾으십니다.

그 부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엎드립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며,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 온 백성 앞에서 아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일까?
 여인을 편안하게 해주며,
 축복마저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는 구원의 기쁜 음성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어제까지 죄인같이
 어디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자기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항상 쥐 죽은 듯, 죄인처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숨어서만 지내던 여인이
 자기 몸이 고쳐지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구원의 판정을 받았으니
 이 어이 아니 기쁜 일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또다시 맞을 수 있으랴!
 예수님에게서 고침과 구원을 받은 여인의 행복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언제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가?!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의 행복을 빌어주시고는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야이로와 야이로의 일행은 다소 어리둥절해 합니다.

‘이미 죽었다는데, 무슨 또 무엇이 있을까?

다시 살려내시기라도 하실런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막아서지는 않고

묵묵히 그러면서도 ‘어쩌면 다시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야이로는 몇 번씩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다면?!’

‘이렇게 죽어 없어질 것을,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괜히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미친 듯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찾아왔던가?!’

그러면서도 야이로의 머리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맴돕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야이로의 집까지 따라온 군중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그 집에 가셔서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두 아이 때문에 울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울지들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

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저러는 거야?!’
 ‘다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아냥을 뒤로 하신 채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음의 세계를 향하던 아이의 영혼이
 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몸으로 돌아가
 아이와 함께 되살아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을 받고
 아이의 영이 되돌아와서, 아이가 즉시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며칠을 아무것도 못 먹고
 병치레하느라고 허기졌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십니다.

아이의 부모는 몹시 놀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손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기적을 바라보고는
 그저 감탄하고 반가울 뿐입니다.
 그리고 반갑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찬미와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간절한 원을 들어주시려고 고쳐주신 것이지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마치 미신같은 소문이 퍼져
 예수님을 사랑의 구세주요.

인간을 구하시는 구세주로 여기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자로 여기기를 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유다 회당장이 이 일로, 다른 이들에게
유다교를 배반했다고 비난을 받을까 염려되어 배려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는 인간을 구하시고
기쁜소식을 안겨주시는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 안겨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청원들을 전부 드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의식이 생겨났을 때부터,
가정과 친우와 사회와 민족의 염원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주 하느님 품에 안겨 오래오래 머물렀습니다.
평안하고 포근한 그 품에 안겨서 쉬십시오.

(☞ 약 20분 가량 침묵 속에서 각자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뒤, 그간 천사와 하느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과 느낌을 적어보십시오.

(1)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적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이 금방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2) 그 성경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습니까? 또는 어떻게 마음을 흔듭니까?

(3)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하기만 할 듯만 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는지요?

그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요?!

* 위 질문들과는 다른, 자신이 기도하면서 다가온 느낌이나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기도 끝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아주 짧게 마무리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또 자기 주보성인께 기도를 바치고 마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_____.”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_____.”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님, _____.”

“어머니, _____.”

“성 _____ 님, _____.”

6. 성품성사 영성생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글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요? 가난한 나를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가면 반기기나 하나요?!”

“난 결혼할 거예요.”

“주님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적당히 쉬고 내 인생도 살아야죠.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을 누가 해요? 자기 시간, 자기 인생도 없이 그저 남의 일에만 쫓아다니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은 즐기라고 주신 것 아닌가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요? 하느님의 뜻은 뭐 다른 가요…….”

둘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옆 사람과 둘이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시장에서 살 물건을 고르면서, 술집에서 우정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될지 고민하면서, 나를 유혹하는 사회라는 거리에서 광고와 텔레비전과 시대의 흐름이 말해주는 대로 뒤쫓으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 앞에서 주님의 호소에 따라 위로하면서…….

나는 성품성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주 예수님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서 이끄시는 길로 가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요한 10, 9)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바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11절) 실제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 봉헌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한 명씩 따로따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잘 압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14-15절)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16절)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목자로서, 아버지 하느님께서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양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살려주십니다. 그런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느님께서서 사랑하시고, 기꺼이 다시 생명을 주심으로써 부활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17절) 예수님께서서 바치시는 생명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내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18절)

우리는 성품 성사를 통해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되어 일생 동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서는 마지막 날 우리

의 공로를 갚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주님처럼 목숨을 바친다면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3절),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 베드로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6절)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서 발을 닦아주시는 의미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7절) 라고 이르십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8절) 하니,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8절) 갑자기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께,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9절) 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12-15절)라고 하심으로써, 성품성사를 받는 사제직의 본질이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임을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하셔야만,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태 20,26-28)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20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덧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마태 20,25) 라고 말씀하시며, 성품성사를 받은 우리에게는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4-15)

그래서 우리는 성품 성사를 통해, 백성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종이 되어 봉사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요한 17,1)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3절)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허락하신 권한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돌아가실 때가 되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11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지켜주십사 청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서 그러셨던 것처럼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13절)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지켜주십사고 비는 내용은, 제자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요, 굶어죽지 않고 늘 배부르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사고 빕니다.”(15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잘 따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16-17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19절) 라고 아버지 하느님께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뽑으신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갈 제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20절)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 곳곳에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각기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문화로,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어디서나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문화를 바탕으로 한 획일적인 일치가 아닌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성 가운데 인류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주 하느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따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찬미하는 신앙의 일치를 통해 하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교회에 모인 사제적 백성들이, 주 하느님을 믿는 신앙의 일치 안에서, 서로의 소소한 다름으로 분열되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21절)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성품 성사를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 다 합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22-23절) 그러면 아버지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듯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알게되고 믿게된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느님을

믿고 흠숭함으로써,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26절)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직접 뵈옵고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사랑해야만, 갖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하느님 나라를 꾸준하고 성실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곧, 주님께서 사제들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와 나의 사랑 속에 생겨나고 현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_ㄱ.16_ㄱ.17_ㄱ)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15_ㄴ.16_ㄴ.17_ㄴ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15_ㄷ.16_ㄷ.17_ㄷ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하문하시자, 베드로가 서글픈 마음으로 주님께 하소연하듯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인간의 나약하고 부족한 탓일 뿐, 예수님 자체를 마음으로 부정하고 거부한 것은 아니며,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실존적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17절_ㄷ)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박해를 받아 죽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18절)

예수님께서서는 성품 성사를 받는 사제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나 자기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제가 되면 사람들의 박해를 각오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신 것처럼, 사제도 착한 목자가 되어 자기를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19절)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성품성사에 대해, “신자들 가운데에서 성품에 오르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다.”(교회 헌장 11)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대리자로서 사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규 신학 교육을 받게 한 후, 하느님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께 이끄는 목자로 서품시키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성품성사를 통해 주님과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집성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바오로 사도는 제자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2티모 1,6)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1티모 3,1). 티토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 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티토 1,5)”(1590항)라고 이룹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기반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성품성사로 축성하여 사제를 봉헌합니다. “교회 전체가 사제적 백성이다. 세례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이라고 한다. 이 사제직을 토대로 이 사제직에 봉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에 달리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품성사로 수여되는 봉사 직무이다. 이 임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다.”(1591항)

사제들은 직무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권한으로 봉헌됩니다. “직무 사제직은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받은 거룩한 권한 때문에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는 본질적으

로 다르다. 성품 교역자들은 가르치고(munus docendi), 하느님께 예배드리며(munus liturgicum), 사목적 다스림(munus regendi)으로써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1592항)

성품 직무는 처음부터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세 품계로 수여되고 행사됩니다(1593항). “주교는 충만한 성품성사를 받는다. 그로써 주교는 주교단에 들게 되고, 그에게 맡겨진 개별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이 된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 사도적 책임과 교회 전체의 사명에 참여한다.”(1594항)

사제는 주교와의 일치안에서 교회에 봉사합니다. “사제는 사제 품위에서는 주교와 일치하고, 사목적의 수행에서는 주교들에게 속해 있다. 사제는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주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제단은 주교와 더불어 개별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제는 주교에게서 본당 공동체의 직무나 일정한 교회 임무를 부여 받는다.”(1595항)

“부제는 교회의 봉사 임무를 위하여 서품되는 성직자이다. 그는 직무 사제직을 받지 않지만, 서품으로 말씀과 하느님 예배, 사목적인 지도, 자선 활동의 중요한 봉사 임무를 받는다. 그는 주교의 사목적 권위 아래서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596항)

“성품성사는 안수에 이은 장엄한 축성 기도로 베풀어진다. 이 기도는 서품 받는 자에게 그 봉사 직무에 요구되는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다. 서품은 지워지지 않는 성사의 인호를 새겨 준다.”(1597항)

“교회는 봉사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정식으로 인정된 세례 받은 남자들에게만 성품성사를 준다. 성품성사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책임과 권리는 교회의 권위에 있다.”(1598항)

말씀

일치와 겸손(필리 2,1-16)

2¹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²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³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⁴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⁵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⁶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⁸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¹⁰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¹¹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¹²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¹³하느님께서서는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¹⁴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¹⁵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¹⁶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품성사의 영성생활

주님께서서는 성품성사를 통해 “나와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서 우리가 받은 사도직의 원형과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18-19,21)

그러므로 주님의 사제직을 받은 사도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과 함께 그 복음을 이룹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은총을 선포합니다.

둘째, 사도 바오로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도직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사도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로마 1,1)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로마 15,16)

2) 사도는 하느님의 일꾼이며, 하느님으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로마 15,18-19)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에페 3,7)

3)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1코린 2,2)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갈라 6,14)

4) 사도는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서 몸소 활동하시도록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10)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필리 3,8-9₁)

5)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필리 1,21)

6) 사도는 자신에게 임무를 맡기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2티모 1,11-12)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

7)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1코린 9,27)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필리 3,12)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콜로 1,29)

8)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7₁-8) 그러므로 사도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필리 2,17)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로마 12,1)

9) 사도의 기쁨과 보람은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로마 1,8) “여러분에 대한 나의 신뢰도 크고 여러분에 대한 나의 사랑도 큼니다. 나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2코린 7,4)있는 것입니다.

10) 사도의 아픔과 희망은 “나의 자녀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어조로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갈라 4,19-20)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2티모 2,10)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에페 1,17-18)라는 것입니다.

11) 사도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정진해야 할 사람이고, 또한 이를 위해 신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느님께서 열어 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신비를 위하여 지금 갇혀 있습니다.”(콜로 4,3)

셋째, 사도 바오로는 목자로서의 사목적인 배려에 대해 말합니다.

1)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1코린 4,14)

2) 목자로서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신자들을 만나야 하는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로마 1,11-12)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2코린 2,4) “코린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2코린 6,11,13)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1코린 7,35)

3)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이렇게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가 만나는 신자들의 조건과 수준에 자신을 낮추어 맞춥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1코린 9,19)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1코린 3,1)

4) 사도는 신자들 안에 드러난 사건들을 신앙의 빛으로 비춰보고 식별하도록 합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에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로마 10,2)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2)

5) 사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권고하고 명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코린 1,10)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에페 4,17)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2티모 4,1-7)

넷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함께 실천할 협조자들을 선발하고 양성한 후 파견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2티모 1,6) “그 때문에 내가 티키코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에페 6,22)

그리고 사목의 연계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단의 일치성을 도모합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3,6)

다섯째, 우리가 사제가 되고 싶어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제직으로 부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필리 2,13)

그리고 사제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

그리고 또한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필리 2,15-16)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이상에서 본 사제직은 제단에서 말씀과 희생제사로 봉사하는 ‘직무 사제직’, ‘서품 사제직’ 또는 ‘축성 사제직’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사제적 백성이 됩니다. 즉 신자 각자 자신이 몸담고 일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사제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사제직을 ‘공통 사제직’, ‘일반 사제직’, 또는 ‘평신도 사도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의 서품 사제직에 관한 이상의 말씀들이 우리 평신도 사도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품 사제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축성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봉사하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상과 나눔

1. 나는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는 아닐지라도 세례성사를 통해 평신도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일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사도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2. 내가 평신도 사도로서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 (내가 만일 사제직을 걷고 싶다면) 왜, 무엇을 위해 사제직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새 빛

사제서품 예식 중에서 주교님의 훈시

첫째, 예언직에 대하여, “여러분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교도직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인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십시오. 하느님의 법을 깊이 묵상하며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리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성실한 생활은 신자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말과 모범으로 하느님의 교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성화)사제직에 대하여,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임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봉사로서 신자들의 영적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와 결합되어 완성될 것입니다. 제단에서 여러분이 거행하는 미사는 바로 여러분이 신자들과 함께 피흐름 없이 봉헌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거행하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거행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세례로 사람들을 모아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며, 병자성사로 병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 하느님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매일 여러 차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자신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 중에서 선발되어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임명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참된 사랑과 변

함없는 기쁨으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이익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셋째, 왕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머리이시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주교와 결합하여, 그 지도에 따라 신자들을 한 가족으로 일치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봉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러 오셨고 길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모범으로 삼기 바랍니다.”

6-1. 성품성사 영성생활 관상기도

오늘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상 제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봅시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에게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씻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로 합시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 새로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족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합시다.

먼저 자세 잡기

이제, 성령청원기도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청하십시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음속으로 10번 불러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조용히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시오.

자, 이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제사를 바치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상 제사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님과 성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사랑에 잠겨 참회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 참 생명을 얻고 새로나기로 합시다.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생명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주님과 하나되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얻어 누리기로 합시다.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심(루카 23,13-49)

23 ¹³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¹⁴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¹⁵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¹⁶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¹⁷⁾그는 축제 때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을 풀어 줄 의무가 있었다.

¹⁸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자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¹⁹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²⁰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²¹그들은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²²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하자, ²³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²⁴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²⁵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²⁶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²⁷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²⁸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²⁹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³⁰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 다오.’ 할’ 것이다. ³¹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³²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³³‘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³⁴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다.

³⁵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³⁶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³⁷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³⁸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³⁹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⁴⁰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⁴¹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⁴²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⁴³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⁴⁴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⁴⁵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⁴⁶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⁴⁷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⁴⁸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⁴⁹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 성경구절은 다같이 마음 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읽습니다.)

하느님께서 정성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지어내시는 모습도 봅시다.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내시고, 숨을 불어 넣어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나를 비롯한 사람들은 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세상 에너지의 분포도, 깨져가는 환경의 조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고 싶고,, 갖고 싶어서 손을 댄 것이 공동체와 인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폐해를 안겨주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주 하느님께서 보호막처럼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굴레를 벗어나,

악마의 유혹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나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탐욕과 경쟁과 질시와 시샘의 분탕질로, 죄악의 노예가 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 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와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만형으로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빵의 기적을 일으켜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은 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깝게 받아들이고 귀찮아하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급기야는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증오하는 나와 우리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불평과 불만, 탐욕과 증오로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눕혀지고 못박히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목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혀 있는 못에 망치질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죄악의 목록이 선언되고 고발될 때마다, 쿵! 쿵! 울퍼퍼지는 망치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기꺼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박히시기는 하셨어도,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줄어드는 우리의 죄의 양을 바라보시며, 고통에 몸부림치시면서도 그 고통과 시련의 순간을 감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 구원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심정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 정도면 됐어, 그만!’이라고 외치고 싶어서, 온몸을 부르르 떠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안고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과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움직임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새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께 매달려 간구합시다. 수치스러움과 뻔뻔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참회와 새 삶의 길을 다짐하면서 청합시다.

예수님, 저를 구하소서!

예수님, 저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저를 구하소서!

예수님, 저를 주님 사랑으로 새로 나게 해주소서.

예수님 신원의 본질인 인간 구원의 사명을 다 실현하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 용서를 청해봅시다.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하나 하나 되새기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견잡을 수 없는 주 하느님 사랑의 큰 물결에 잠겨서,
인간 세상의 한계지어진 상황을 핑계로 옳게 견지 못한 우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나 찢혀지는 내 더러운 죄악을 보십시오.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 사랑에 안겨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님 품에 안겨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씻어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서 얻는 평화속에 잠겨 계십시오.

(☞ 약 20분가량 침묵 속에서 각자 기도합니다.)

정리하실 시간입니다.

기도를 마치시면서,

먼저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성모님과 자신의 주보성인께 짧게 감사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되고 느끼고 만끽했던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화와 초월을 조심스레 간직하시고, 예수님과의 순간과 느낌을 짝막하게 적어보십시오.

(1)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적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이 금방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2) 그 성경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습니까? 또는 어떻게 마음을 흔듭니까?

(3)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 용서와 기도 내용이 주 하느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계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의 용서를 받고, 나는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 위 질문들과는 다른, 자신이 기도하면서 다가온 느낌이나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기도 끝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아주 짧게 마무리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또 자기 주보성인에게 기도를 바치고 마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_____.”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_____.”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님, _____.”

“어머니, _____.”

“성 _____ 님, _____.”

7 혼인성사 영성생활

-둘이 한 몸을

글씨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안 맞는 걸 맞춘답시고 고생만 하지, 새 사람 만나서 새롭게 살아야지요.”

“혼자 살면 정말 편하겠어요. 자식 없는 게 상팔자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서로 싫어하는 일만 조심하면서 맞추며 사는 거지.”

“저희도 처음엔 주는 대로 낳아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회가 이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 배우자와 가족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바람에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과 둘이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조금만 일찍 들어오세요!, 집 좀 지키고 있어요!, 술 좀 그만 드세요!, 바가지 좀 끊지 마세요!, 체신 좀 지키세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지럽히지 좀 마세요!,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그 성격 좀 고치세요!, 그것만, 그것만, 조금만…….

나는 성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인간 남녀의 결합을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라고 이르십니다. 당사자들은 서로가 좋아서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것이지만, 어쩌면 서로를 선택하도록, 서로의 눈에 띄도록, 서로의 앞에 나타나도록 해주신 분이 하느님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마태 19,4-6^ㄴ)

주 하느님께서서는 남녀의 결합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으므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 부부를 자신들이나 그들을 둘러싼 다른 누가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이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6절^ㄴ)

예수님께서서는 혼인 성사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 세상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돌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오십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잔치를 준비한 이들은 당황해 하고, 어쩔줄 몰라합니다. 그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립니다. “포도주가 없구나.”(요한 2,3) 어쩌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장만하시다가 재료가 떨어졌거나, 갑자기 아버지가 예기치 않은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당황해하는 어머니를 도와 소소한 기적들을 베푸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께서 능히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혼인 잔치를 흥겹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시다.”(4절) 하고 거절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느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닥쳐서 당장 고쳐주어야만 하는 경우도 아니며,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긴급하게 사용할 기적을 이렇게 단지 먹고 마시기 좋으라고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이를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이 기적의 의미보다는 그저 값없이 먹고 마시는데 흡족하여 매달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소명이 희석되고 축소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5절) 하고 말하면서, 아들 예수님에게 거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압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고 싶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청을 무시하기보다, 혼인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물 독에 물을 채워라.**”(7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혼인 성사를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키워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통해 세상에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일꾼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두세 동이 돌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8절)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갑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그 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9-10절)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인간 남녀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베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11절) 또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어려운 상황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11절) 이 혼인 잔치의 기적 전에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기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요한 1, 46)하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현장은 혼인성사에 대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풍요**

로운 사랑과 일치的神비를 드러내고 그 신비에 참여하는 혼인성사의 힘으로(에페 5,32 참조), 그리스도인 부부는 부부 생활은 물론 자녀 출산과 교육을 통하여 성덕에 나아가도록 서로 도와 주며, 또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자기 생활 신분과 영역에 고유한 은총을 받는다. 실제로 이 혼인에서 가정이 생겨나고, 가정에서 인간 사회의 새로운 시민들이 태어나며,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그들은 하느님 백성을 역사의 흐름 속에 영속시키도록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가정 교회에서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하며, 각자의 고유한 소명을 특별한 배려로 육성하여야 한다.”(교회 헌장 11)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라고 선언합니다(교회 법전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1055조 1항).

혼인성사를 통하여 예수, 마리아,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을 이름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혼인을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비유하십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이 형성되고, 가정에서 인간 사회의 새 시민들이 탄생하며, 그들이 영원한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혼인성사를 통해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무르익히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집성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바오로 사도는 말한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에페 5,25.32)”(1659항)라고 이룹니다.

부부의 결합은 창조주께서 제정하신 제도이며,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승화시켜주셨다고 일컫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혼인 제도는 창조주께서 제정하셨으며, 그분께 고유한 법을 받았다. 이 결합은 본성상 부부의 행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의 혼인

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이셨다.”(1660항, 사목 헌장, 48항; 교회법 제1055조 1항 참조.)

교리서는 남녀의 결합인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과 연관시켜 설명합니다.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총을 부부에게 준다. 이 성사의 은총은 부부의 인간적 사랑을 완성하고, 해소할 수 없는 그들의 결합을 굳건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그들을 성화한다.”(1661항,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 혼인성사 교리 : DS 1799 참조.)

혼인의 목적은, “혼인은, 성실하며 자녀를 낳는 사랑의 유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를 결정적으로 내어 주겠다는 의지, 곧 당사자들의 합의에 근거한다.”(1662항)라고 밝힙니다.

혼인이라는 사회의 공적인 제도에 연결시켜, 사적인 남녀의 결합을 전례적으로 거행하여 공적으로 선포하며 보호합니다. “혼인은 부부에게 교회 내의 공인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제(또는 교회의 자격 있는 증인)와 증인들과 신자 회중 앞에서, 전례 거행의 틀 안에서 공적으로 거행되는 것이 마땅하다.”(1663항)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 및 사랑의 결과인 출산을, 혼인의 필요 조건으로 삼습니다.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과 출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혼인에 필수적이다. 일부다처제는 혼인의 단일성과 양립할 수 없고, 이혼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가르는 것이며, 출산 거부는 하느님께서 부부 생활에 주시는, 자녀라는 ‘가장 뛰어난 선물’을 외면하는 것이다.”(1664항, 사목헌장 50 참조)

신앙인에게 있어서, 혼인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와의 결합만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배우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며, 불합법적인 재혼이나 동거생활로는 미사에 참례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고해성사나 성체성사를 영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느님의 계획과 규범에 어긋난다. 그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지만 성체를 모실 수 없다. 그들은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1665항)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민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가정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모신 성가정으로 신앙생활을 더욱더 거룩하게 고양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이 처음으로 신앙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가정 교회’,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인간적인 덕행과 그리스도 사랑의 학교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1666항)

말씀

아내와 남편(에페 5,21-33)

5 ²¹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²²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²³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²⁴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²⁵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²⁶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²⁷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²⁸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²⁹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³⁰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³¹“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³²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³³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혼인성사의 영성생활

주님께서서는 혼인성사를 통해 “내 앞에서 한 약속을 무르익히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일찍 좀 들어오세요! 늦으면 전화

라도 하고요! 기다리는 사람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술 좀 작작 드세요!” 또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집 좀 지켜 집 좀! 매일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집에서 청소도 하고, 맨날 방구석이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돼지 우리지!”

답답합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게다가 요란스럽게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걸리적거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런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그려 왔고, 아직도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내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내 마음 속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매일 술만 먹고 늦게 귀가하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매일 집을 비우고 쏘다니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난 지금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점을 간직한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이 점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다 좋은데 그 점만 조금 고치면…….”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점만’, 그리고 ‘조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에게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상대에게는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라고 지적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겠지요!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용기는 지적하는 것을 넘어, 자기가 아는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에페 5,28)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희망사항을 채워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사랑이라기보다는 이기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점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배우자의 그 점을 포용할 여유가 없는, 배우자가 내 한계를 넘어섰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불만과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배우자를 점지해 주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나의 부족한 점을 배우자가 채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신경에 거슬리고, 나를 화나게 할 때마다, 하느님과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는 나를 사랑해서, 나의 한계를 깨뜨리고 성숙시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에페 5,25)

셋째,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에페 5,31)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그 동안 서로 다른 가문과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성장과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였다고 해서, 아니 결혼한 부부라고 해서, 자기와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어리석은 기대였을 것입니다. 서로 같을 수 있다면 하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과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같으니까요!

‘하나 된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같다는 의미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완성에 이룬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보완하여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라는 한 모습으로, 이웃과 친지들에게 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실제로 만나게 되면,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의 결정과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함께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에페 5,26) 그러므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키우시고 살리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몸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볼 때,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결합을, 주님께서 성사로 들어 올려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7-8)

우리 역시 우리의 혼인 서약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서약이란, 서로가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렵고 심지어는 헤어지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사랑의 감정을 떠나,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배신과 배반의 외도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지쳐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마태 5,11-12)

설사 살아서 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가 걸어 나갈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한평생 외도로 아내를 괴롭혀온 한 남편이 죽어 가면서, 차마 자기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서 아내의 가슴에 묻히겠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처지 안에서,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호소를 들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우리 주변에 살도록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난한 이웃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격적인 완성을 위해, 내 배우자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인생을 나누어 온 배우자를, 이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 자기를 속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은, 변천하는 사회사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변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친척들 안에서 보내야 하는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과거에 비해 너무나 변화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멀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은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 일에 매달리다시피 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은 다 커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느라 자신의 친정과 친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꿈과 문화 그리고 자기 계발의 순간을 다 놓쳐 버렸습니다. 어느덧 나이만 덜렁 들어 버린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허전해하고 억울해하는 40대 아내의 방향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 자신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애써 일해 온 서로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지난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나밖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나밖에 맡아 줄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이 배우자를 보내셨다!”는 다짐을, 혼인 서

약의 충실성과 책임감과 함께 가져봅시다. 어쩌면 이제부터 서로의 인격을 완성시킬 때가 아니겠습니까?

결혼에 관한 사도 성 바오로의 견해(1코린 7,1-16 참조)

.결혼과 독신생활

“혼자 사는 이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1코린 7,8-9)

.결혼의 불가해소성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1코린 7,10-11)

.별거상황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코린 7,5)

.외딴 교우와 바오로 특전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1코린 7,12-15)

목상과 나눔

1.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에페 5,21)

1) 남에게 자랑할 만하고 자기도 마음속으로부터 공경하는 배우자의 장점을 발견했습니까?

2) 배우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보일 때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들어 줍니까?

서로의 가치관과 입장 차이를 겸허히 인정합니까?

2.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에페 5,25-26)

1)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만큼 아내에게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2) 아내로서 남편을 신뢰하고 순종합니까?

3) 다음 물음에 서로 답하십시오.

① 배우자의 생일과 기념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줍니까?

언제, 어떻게?

② 배우자의 꿈이나 취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③ 배우자의 꿈과 취미를 살릴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④ 배우자의 바람과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들어 줍니까?

⑤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배려합니까?

⑥ 서로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서로 양해와 화해를 위한 시간을 가집니까?

⑦ 서로의 성적 요구에 성실히 응합니까?

⑧ 서로를 자기 인생의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일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⑨ 배우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어떤 방법으로든 전하고 있습니까?

⑩ 배우자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배려해 줍니까?

⑪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같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합니까?

부부 십계명

남편의 십계명 아내의 십계명

- | | |
|--|--|
| <p>1. 아내를 위해 화살기도를 하고 아내에게서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느님께 삶을 봉헌하는 동반자임을 기억합니다.</p> | <p>1.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느님 은총의 공동 상속자임을 기억합니다.</p> |
| <p>2.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집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합니다.</p> | <p>2.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해 가정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편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서, 혼자서만 말하지 말고 남편의 말도 들읍시다.</p> |
| <p>3. 식탁에 오른 음식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합니다.</p> | <p>3.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합니다.</p> |
| <p>4. 아내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지나친 음주로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며, 귀가 시간이 늦을 때는 전화합니다.</p> | <p>4. 남편에게 할 말이 있을 때 분위기와 기회를 잘 선택하고 남편의 잘못된 점을 보았을 때 칭찬과 함께 넌지시 말합니다.</p> |
| <p>5.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아내의 위치를 세워 주고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갑니다.</p> | <p>5. 남편의 기를 살려주고, 남편의 결점을 늘어 놓거나 바가지를 긁지 않습니다.</p> |
| <p>6. 아내를 다른 여인과 비교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p> | <p>6. 모임이나 회중 앞에서 남편을 자랑하기보다 묵묵히 존경하고, 경솔한 말이나 행동을 삼갑니다.</p> |

- | | |
|--|--|
| 7.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판단과 문제해결 방식만 옳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아내와 대화하고 가정불화 시에는 아내에게 한 걸음 양보합시다. | 7.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취미생활이나 하느님께서 주신 장점을 키워서 자신을 개발해 나갑시다. |
| 8.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정한 날짜에 외출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 8.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 좋은 말씀을 남편에게 말이나 글로 전합시다. |
| 9. 아내의 건강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쓰고, 아내의 취미나 재능을 키워줍시다. | 9. 모든 일에 인내를 갖고 일하며 짜증스런 말이나, 행동을 피합시다. |
| 10. 주부의 위치를 존중하고 살림살이는 가능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합시다. | 10. 남편이 갖고 싶어하는 한적한 시간을 존중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보금자리로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 |

새 빛

혼인(동의)서약

◎ 나()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 교회 안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주께서 친히 견고케 하시고 풍부히 강복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

“준성사는 성사들의 효과를 받도록 사람을 준비시키고, 삶의 여러 상황을 성화하고자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표징이다.”(1677항)

“준성사 중에서도 축복(benedictio)은 중요한 것이다. 축복은 하느님의 업적과 선물에 대한 찬미와, 사람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복음 정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교회의 전구를 포함한다.”(1678항)

“전례 이외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 가지 문화에 뿌리박은 다양한 형태의 대중 신심 행위로 길러진다. 교회는 신심 행위의 여러 형태들을 신앙의 빛으로 주의깊게 밝혀 주면서, 복음적 직관과 인간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대중 신심의 형태들을 권장한다.”(1679항)

□ 피 정

8-1. 일곱성사 영성생활
-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활

오늘은 일곱 성사의 영성 수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피정하는 마음으로 ‘일곱 성사의 영성 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활’이라는 주제로 성 바오로 서간의 콜로사아서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삶(콜로 2,20-3,17)

2²⁰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으면서도, **어찌 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정에 얽매어,** ²¹“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합니까? ²²모든 것은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인간의 법규와 가르침에 따른 것들일 뿐입니다. ²³그런 것들은 자발적인 신심과 겸손과 육신의 고행을 내세워 지혜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3¹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²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³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⁴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⁵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⁶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⁷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⁸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⁹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¹⁰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¹¹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

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¹²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¹³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¹⁴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¹⁵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¹⁶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¹⁷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일곱성사 영성생활

주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사회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존재하기 위한 장치들로 그 사회가 유지되어 온 관습과 그에 따른 규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회가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문화유산이 가리켜 온 것을 상식과 통념이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러한 문화유산 속에는 가족제도에서부터 사회 경제 생활 및 종교생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당연하다고 느끼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요구마저 하며 삽니다. 교육도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관습을 전수하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각 민족이 자신들이 속한 문화유산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전하는 신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하느님을 믿는 같은 하느님의 교회이지만, 전세계가 모두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고, 각 민족이 살아온 문화유산 속에서 문화와 신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각 민족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 사회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지난 ‘미사의 영성’ 수업의 ‘파견’ 과목에서 보았듯이,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이미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에서 복음화에 대한 명백한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기타 다른 성사를 주는 것”을 복음화 활동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현대의 복음선교 17). 복음화는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신적 능력으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활동, 그들의 생활과 구체적 환경을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현대의 복음선교 18).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가치관, 사상, 생활 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것”입니다(현대의 복음선교 19).

성사생활도 이 복음화의 비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제일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문화유산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희생적인 사랑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춰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사건과 상황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그 사건과 상황이 문화유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에 따라, 그리고 그에 대해 주님의 말씀과 정신을 적용하고 대응하는 방향과 질에 따라, 토착화와 문화화의 과정을 거치며 매 순간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방향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도록 안내해 주는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여, 우리 모두가 그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미리 그 하느님 나라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어 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든가, 무시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친히, 요한 복음 사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3,1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다운 자세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삶의 기준이요 이정표가 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이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요한 7,38)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러 가셔서 그 동생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 11,25-26)라고 물으시며,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라고 주님의 신원을 밝히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6-17)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온전히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탓하시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요한 14,21)

넷째,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나 굴레가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버거워하는 우리 삶을 주님께서서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자비와 위로에 잠기는 것이 진정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 속에 들어있었던 그때처럼, 우리가 어릴 때 밖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있었어도 집에 돌아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의 그 평온함처럼. 추운 겨울 외출하고 돌아온 우리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씻어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스런 손길처럼, 어릴 때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자 완전함과 듅직함과 담보하셨던 부모님의 존재처럼, 내 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평안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경 쓰게 하고 제한하며 억누르는 모든 장애와 벽을 허무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옳건 그르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종교계율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랑함으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은 사랑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1-3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고 이르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요한 14,15)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형제를 구하기 위해 나를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요한 15,10)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희망된 삶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도 성 바오로는 콜로사이 교회 신자들에게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콜로 3,14)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말 것이며, 남과 비교하며, 특별히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

신 특별한 은사와 소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 점과 다른 이의 잘하는 점을 비교하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으며, 지금 당장 백 퍼센트 다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다 따르지 못한다고 죄인처럼 수그러지지도 말 것이며, 사랑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굳센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사랑의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합시다.

때로는 살다보면, 마음 먹는 것처럼 쉽사리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악마가 내 마음 속에 심어 놓은 악한 감정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안에서 싹터오르는 악마의 기운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드러나서, 내 안에 악마의 충동으로 빚어진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금방 사그라들지 않고 때로는 점점 더 커지기까지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바에야, 미워하지는 말자.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말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자.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자. 어쩌면 그 순간 상황과 경우가 애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함께 살도록 보내주신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못해도, 주님의 자녀로서 못 할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조금 덜 부끄럽고, 조금 덜 죄스러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도 서로 다른 우리가 적어도 평화 안에서 서로 공존하는 방안을 택해야만, 나도 악마가 내 안에 심어 놓은 부정적인 감정과 충동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애초에 타인의 무관심과 멸시로 빚어진 폐해를 끌어안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폐해를 끌어안을 때 세상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결과를 보고 회개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함께하고자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될 때면, 자기 죄악의 결과를 숨기기 위해 우리를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28)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콜로 3,3)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지,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로마 6,8) 그러므로 중단없이 사랑을 완성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로마 12,14-21)

여섯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으면서도,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정에 얽매어,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합니까?”(콜로 2,20-21) 종교계율을 메우고 채우려고 수고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을 때, ‘비행기로 갈까? 기차로 갈까? 버스로 갈까? 자전거로 갈까? 걸어서 갈까? 어느 것으로 갈까?’ 하고 망설이기보다, 그 중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 수단은 자연스레 없어져 버립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콜로 3,2)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다른 것은 그냥 허물어지고 맙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맨 첫 자리에 놓고 살아가십시오.

일곱째,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콜로 3,10) 처음부터 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배워가듯이, 조금씩 점차로 사랑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사는 방법인지 배워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골로 3,16-)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찾고, 찾은 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모두 실현될 것이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제때에 성취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라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는다. 그 말씀은 한마디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다 실현될 것이다.”(토빗 14,4)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수고와 수난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생각의 교정이든, 사회의 변화이든, 이해관계자들의 변화이든, 우리를 비롯한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희생하면서 기다리면, 비록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해도, 주님 사랑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이사 55,11)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엄위하심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 말씀은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으로 불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을, 당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천한 결과를, 다시 말씀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점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휘감아 주실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 1,11)

묵상

주님께 성사의 은총을 청하면서 편지를 올립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성사 중에 기억나는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바칩시다.

또는 성사를 통해 받은 은총의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바칩시다.

성사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은총을 받았다고 느끼는지?

성사를 통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끼는지?

새 빛

사도 바오로의 마지막 권고(1테살 5,16-22.25)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록

1. 성사로 간주할 만한 표지들
 - 1) 말씀의 전례와 말씀 나누기
 - 2) 기도
 - 3) 거룩한 신심행위
 - 4) 희생-단식과 자선 그리고 봉사
 - 5) 축성-축성생활회(수도회와 재속회)와 평신도 신심 단체
 - (1) 수도자 종신 서원
 - (2) 동정녀 축성 예식
 - (3) 평신도 신심 단체의 전서

부록 성사로 간주할 만한 표지들

1. 말씀의 전례와 말씀 나누기-구역·반 공동체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성사적인 표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첫째 주님을 알게 해주고, 둘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며, 셋째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교회의 소공동체에서 하는 ‘(복음) 말씀 나누기’는 참으로 성사적입니다. 본당의 소공동체인 구역·반에서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일상생활에 비추어 나눕니다. 이러한 나눔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들은 다른 형제의 발표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모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복음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식별하고, 용기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과 지역사회를 더욱 더 복음화할 수 있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주님의 길을 찾습니다.

우선 자신이나 본당의 신앙생활과 지역사회 속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은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인지 방법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합니다.

2. 기도

우리는 ‘빵 한 조각을 식탁 위에 놓고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겸허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겠다는 응답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당에서 기도하는 수도자들의 모습에서, 평온한 얼굴로 두 눈을 감고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는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경건한 부르심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주인이신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맡기는 봉헌의 자세이며, 거룩해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자들의 모습은, 자신들뿐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하나의 성사적인 표지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바치는

‘묵주의 9일 기도’는, 주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내려 주신 은총에 대해 감사드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 나가려는 사도들의 연구인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왕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 달라는 기본적인 응답입니다.

주님을 기리며,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기도는, 홀로 하더라도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를 회심으로 이끌고, 공동체의 관심사와 현안을 주님께 봉헌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비는 ‘시간경(성무일도)’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고리를 이루어 교회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 곧 기도생활은 주님을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안에 모시고,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도구로써 주님의 뜻대로, 이웃과 함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하는 교회의 삶이며, 그러기에 성사적인 표지입니다.

3. 거룩한 신심행위

말씀의 전례와 함께 또는 말씀의 전례와 연관하여 거행되는 교회의 거룩한 신심행위는 대부분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본받아 공경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심행위들도 교회의 또 하나의 성사적 표지입니다.

우리는 매년 5월 성모 성월을 맞아, 거룩한 신심행위 중 대표격인 ‘성모의 밤’을 통해 성모님의 신앙을 기리고 새깁니다. “성모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며, 교회의 표상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앞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명했고’,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현실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주님께서 오시도록 청했으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수난에 참여했으며’ 주님을 통해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령을 청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자애롭게 바라보고 계십니다.”(심흥보 저, ‘가톨릭 교리서’, 22-1과 215~218쪽, 1994 참조) 성모를 기리는 신심은 신자들의 가슴속에 자애로우신 어머니요, 주님의 겸손된 자녀로서의 자세를 간직하도록 합니다.

또한 9월 순교자 성월에 ‘순교자의 밤’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용기와 삶을 되새기며,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이끄시도록 맡기게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아 더욱 굳건해진 신자들은 매일, 세상의 사고방식과 흐름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생활을 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 성인들의 삶은 우리가 주님께 대한 희망과 믿음을 더욱 굳세

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체성사를 받아 모심으로써 주님을 따라 살도록 해줍니다.

4. 기도와 단식과 희생 및 자선 그리고 봉사

주님께서는 편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자신의 현세적인 발전과 풍족한 삶을 위해 더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이웃의 고통 앞에 멈추어 서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는, 바로 주님의 모습이며, 희생을 하는 이나 그 희생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도록 하는 성사적인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마태 6,10)기를 청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효심 깊게 섬기는 아들임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마태 26,39)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보다 아버지의 뜻과 방법이 맞다고 믿으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의탁하는 성사적인 표지입니다.

단식은 생명체의 자기 보호와 유지의 본능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수고로 끼니를 거를 때(마르 6,31, 참조), 이 단식은 물론이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주님의 성체성사적인 표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에게 부당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거나 그 상황을 거부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억울해하며 마지 못해 하거나 무조건 참기보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겪으신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도 고통을 겪으며 주님께 그 고통을 봉헌한다면 우리에게겐 공덕도 되고 세상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로, 자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시간과 땀, 힘과 소유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웃과 나누는 것 역시 성사적인 표지입니다. 자선과 봉사라는 행위의 의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겠

다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의 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기 위해 봉사하여야 할 것이며, 가진 모든 것은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당연히 나누어야 한다고 여기는 피조물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는 세례성사를 받아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사회를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주님의 자녀가 걸어갈 길이요, 평신도 사도직을 받아 주님의 제자이며, 사도들이 걸어갈 성체성사의 길입니다.

5. 선서-축성생활회(수도회와 재속회)와 평신도 사도직 단체

성품성사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가난과 정결 그리고 순명의 복음 3덕에 따라 선서를 하는, 축성생활회의 회원(수도자와 재속회원)들의 선서도 하나의 성사로 간주할 만한 표지입니다. 또한 평신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의 3덕을 사는, 재속회의 ‘봉헌된 평신도’들의 서약도 성사적 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 3덕을 선서하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려는, 각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선서도 성사적 표지입니다.

여기 수도자들의 서원과 동정녀 축성예식, 그리고 재속회원들의 서약과 평신도 사도직 단체원들의 선서를 소개합니다.

1) 수도자 종신서원-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 저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사람들을 섬기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저 자신을 봉헌하고자 하나이다.

저 ○○○ 수녀는 찬미의 희생 제사를 바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종신토록 정결과 가난과 순명의 삶을 서원하나이다. 저의 이 서원을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안에서 총장(관구장)께 맡겨 드리며 본회 회칙대로 살 것을 서약하나이다.

주님, 당신 은총이 저를 도우시어 제가 하는 이 봉헌을 이루어 주시며 또한 당신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에 늘 충실하게 하소서. 아멘.

2) 동정녀 축성 예식

-레이 메르메 저, 김인영 역, '성경 안에 드러난 신앙',
분도출판사, 1994.

고대교회 이래 사용되던 동정녀 축성 예식서는 성사전례성에 의해 개정되어 1970년 5월 31일 인준되었습니다. 이 예식서는 고유 예식서를 갖지 못한 수녀회와 이 동정녀 축성을 받을 수 있는 허가를 주교로부터 받은 평신도 동정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전례 후에 주교는 후보자들에게 질문합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동정생활을 택한 여러분의 결정을 평생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까?

◎ 네, 원합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증거요 앞으로 올 하늘 나라의 표지로서 드러나도록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 네, 원합니다.

† 여러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바치고, 그분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 네, 원합니다.

<이어서 성인호칭기도와 종신동정서원이 따릅니다. 이제 주교는 손을 뻗친 채 성대한 축성기도를 바칩니다. 이 기도문은 성 레오 교황(440-461년)의 것입니다.>

† 사람들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하느님, 당신은 당신께 봉헌한 이들 가운데 계시며, 자유롭고 깨끗한 마음들을 사랑하시나이다.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서는 당신 자녀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당신 모상을 쇄신하시나이다. 당신은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결백함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의 좋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나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면전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들도 당신 앞에 있도록 부르시나이다.

주님, 저희 자매(수녀)들을 굽어보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은 당신께 그들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정결을 지키고 당신께 영원히 자신들을 봉헌하고자 하는 결정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주님, 만일 당신께서 그들 안에 원의를 불러일으키지 않으시면, 육의 존재들인 이들이 어찌 본성의 욕구를 조절하고, 혼인을 자유로이 거부하며, 온갖 종류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겠나이까?

당신은 온 백성에게 은총을 주시며, 온 나라에서 새 계약의 상속자이며 육과 피로써 나지 않고 성령으로 난 자녀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끌어내시나이다. 이처럼 널리 퍼진 은총 가운데 동정의 은총이 있사오니, 당신은 그것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나이다.

성령께서는 당신 백성을 고무하시어, 그들이 혼인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와와의 일치, 교회와의 일치에 전념하기 위해 혼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이다.

복되도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동정생활의 이유이자 삶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들이여, 그들은 교회의 신랑이자 동정녀 마리아의 아드님이신 분을 사랑하기를 결정했나이다!

<이제 주교는 후보자들에게 안수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 주님, 당신 앞에 서서 이 축성으로 새 희망과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이 자매(수녀)들에게 당신 도움과 보호를 내려 주소서.

수많은 계획을 실패하도록 이끄는 악령이 이들의 정결의 광채를 흐리게 만들지 못하고, 모든 여인의 재화이어야만 할 정결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소서.

당신 성령의 은총으로, 현명, 단순함, 부드러움, 지혜, 신중함, 섬세함, 정결, 자유가 그들 안에 항상 머물게 하소서.

그들이 사랑으로 불타고, 당신 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정화된 마음과 성화된 몸으로 당신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당신께 봉사하게 하소서.

항상 신실하신 당신 안에서 그들의 위엄, 기쁨, 사랑을 발견케 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불의를 당할 때 정의가 되어 주소서.

그들이 시험 중에 있을 때 인내를, 가난 중에 있을 때 부유함을, 먹을 것이 없을 때 음식을, 아플 때 치유의 은총을 내리소서.

그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므로, 그들이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새로이 축성된 이들이 주교에게 다가가면, 주교는 그들에게 반지, 면사보, 기도서, 촛불을 주면서 말합니다.>

† 그리스도와와의 결합의 상징인 이 반지를 받으십시오. 주 예수께 충실함으로써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한 계약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 아멘

† 여러분의 축성의 상징인 이 면사보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도록 봉헌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 아멘

† 교회의 기도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탄원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 아멘

†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때와 그날을 모릅니다. 복음의 빛을 조심하여 보존하시고, 오실 주님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항상 갖추십시오.

◎ 아멘

<새로 축성된 이들이 성찬례에 사용될 빵, 포도주, 물을 제대로 가져갑니다. 이제 미사가 계속됩니다. 영성체 후 주교는 새로이 축성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복합니다.>

† 하느님, 이들의 가슴에 심어 주신 동정생활에 대한 사랑 안에 이들을 항상 지켜 주소서.

◎ 아멘

† 봉헌된 이들의 충실한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평온하고도 많은 결실을 맺는 삶을 이들에게 주소서.

◎ 아멘

† 동정 마리아에게 파견되었고, 오늘 이들의 마음을 축성하신 성령님,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도록 힘을 이들에게 내려주소서.

◎ 아멘

3) 평신도 신심 단체 - 레지오 마리아 헌서문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어, 저(성명과 세례명)는(은)
오늘 레지오 마리아 단원으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는 합당한 봉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오시어 저를 당신으로 채워 주소서.
제가 하는 보잘 것 없는 일들을 당신 힘으로 받쳐 주시며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당신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려고 오셨으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저희 또한 성모 마리아 없이는 당신을 알아 뵈을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음을 아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모든 재능과 성덕과 은총을 내려 주시으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때에,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만큼,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베풀고 계심을 제가 아옵니다.

또한 제가 레지오 단원으로 충실하게 봉사하는 비결은
 당신께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 성모 마리아와 온전히 일치하는
 것임도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  (백실리움을 오른손으로 잡는다. 끝날 때 까지)
 저는 지금 성모님의 병사요 자녀로서 당신 앞에 서서,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함을 선언 하나이다.
 성모님은 내 영혼의 어머니시옵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제 마음은 하나이오며,
 이 하나인 마음으로
 “주님의 종시오니”라고 다시 사뢰오니,
 당신은 성모님을 통하여 큰일을 하시고자 다시 오시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제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성모님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게 해 주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티 없이 되신 성모님 안에서 저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도 자라시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 또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 세상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모셔다 드리게 해 주시고
 그들과 제가 이 세상 싸움에서 이긴 다음 성모님과 함께
 복되신 성삼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소서.

오늘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받아 주시고 저를 써 주시며

저의 나약함을 굳센 힘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실히 믿으며 다짐하나이다.
저는 감히 레지오의 대열에 한 자리를 차지하여 충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레지오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이 규율은 동료 단원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
군단을 이루도록 하며,
또한 성모님과 함께 진군하는
우리의 대열을 가다듬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은총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땅의 얼굴은 새롭게 되고
온 누리에 하느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